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24.06.14

소속	통계학과
조사자	김민규
	이현주
	이혜슬
	황유정
	손인서

<목차>

I.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주요 조사 결과	1
II. 조사 설계	4
1) 조사 배경 및 목적	4
2) 모집단의 정의	5
3) 표본 크기, 표본 배분	5
4) 응답자 선정 및 조사 과정	5
5) 자료수집 방법	5
III. 설문지 작성	6
1) 측정목표	6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7
IV. 분석결과	9
1) 인적사항	9
2)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사항	11
3) 창원시 지방이탈과 관련한 조사 사항	20
4) 개선 방안 사항	39
5) 분석 결과 요약	66

V. 결론 및 제언	68
------------------	----

VI. 참고문헌 및 부록	70
---------------------	----

1) 참고문헌	70
---------------	----

2) 부록	71
-------------	----

〈표, 그림 목차〉

〈 표 0 - 측정목표 테이블 〉	6
〈 표 1 - 조사대상자 성별 및 나이 〉	9
〈 표 2 - 조사대상자 직업 - 나이 교차분석 〉	10
〈 표 3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11
〈 표 4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12
〈 표 5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13
〈 표 6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14
〈 표 7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15
〈 표 8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16
〈 표 9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17
〈 표 10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18
〈 표 11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19
〈 표 12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20
〈 표 13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21
〈 표 14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22
〈 표 15 - 성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23
〈 표 16 - 나이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24
〈 표 17 - 직업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25
〈 표 18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26
〈 표 19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27
〈 표 20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28
〈 표 21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취직/이직 구체적 이유 〉	29
〈 표 22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구체적 이유 〉	29
〈 표 23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학업, 자기개발 구체적 이유 〉	30
〈 표 24 - 성별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31

〈 표 25 - 나이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32
〈 표 26 - 직업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33
〈 표 27 - 직업, 이주 계획지역, 취직/이직 직종 중 빈도수가 높은 항목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교차표 〉	34
〈 표 28 - 나이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	35
〈 표 29 - 직업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	36
〈 표 30 - 타지역 이주 지역 〉	37
〈 표 31 - 타지역 이동 이유 〉	38
〈 표 3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장점 〉	42
〈 표 3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장점 〉	43
〈 표 34 - 나이에 따른 창원시 단점 〉	44
〈 표 35 - 직업에 따른 창원시 단점 〉	45
〈 표 36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유무 〉	48
〈 표 37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50
〈 표 38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51
〈 표 39 - 나이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53
〈 표 40 - 직업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54
〈 표 41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55
〈 표 4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56
〈 표 4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57
〈 표 44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58
〈 표 45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59
〈 표 46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60
〈 표 47 - 성별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61
〈 표 48 - 나이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62
〈 표 49 - 직업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63
〈 표 50 - 개선사항 자유 의견 〉	64

[그림 1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심각성]	1
[그림 2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2
[그림 3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2
[그림 4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거주할 계획 여부]	3
[그림 5 - 조사대상자 성별 및 나이]	9
[그림 6 - 조사대상자 직업 - 나이 교차분석]	10
[그림 7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11
[그림 8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12
[그림 9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13
[그림 10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14
[그림 11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15
[그림 12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16
[그림 13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17
[그림 14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18
[그림 15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19
[그림 16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20
[그림 17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21
[그림 18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22
[그림 19 - 성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23
[그림 20 - 나이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24
[그림 21 - 직업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25
[그림 22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26
[그림 23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27
[그림 24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28
[그림 25 - 성별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31
[그림 26 - 나이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32
[그림 27 - 직업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33

[그림 28 - 나이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35
[그림 29 - 직업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36
[그림 30 - 타지역 이주 지역]	37
[그림 31 - 성별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39
[그림 3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40
[그림 3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41
[그림 34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장점]	42
[그림 35 - 나이에 따른 창원시 단점]	44
[그림 36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46
[그림 37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47
[그림 38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48
[그림 39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49
[그림 40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50
[그림 41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51
[그림 42 - 성별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52
[그림 43 - 나이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53
[그림 44 - 직업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54
[그림 45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55
[그림 46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56
[그림 47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57
[그림 48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58
[그림 49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59
[그림 50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60
[그림 51 - 성별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61
[그림 52 - 나이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62
[그림 53 - 직업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63
[그림 54 - 개선사항 자유 의견]	64

감사의 말

이번 통계조사실습 강의를 통해 이전에 막연히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표본조사론과 SPSS 참고서적을 참고하며 열심히 실습을 수행하였는데, 어느덧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지난 강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약간의 아쉬움과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강의해 주시며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조언과 많은 격려로 이끌어 주신 통계학과 허순영 교수님뿐만 아니라, 실습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조교님과 같이 강의를 들은 20명의 학우분들,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설문에 참여해 주신 270명의 응답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선정에서부터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 본조사, 최종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참여해 준 조원들 덕분에 본 실습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기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출산 및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지방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걸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를 통해 창원시 청년 지방이탈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가 되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통계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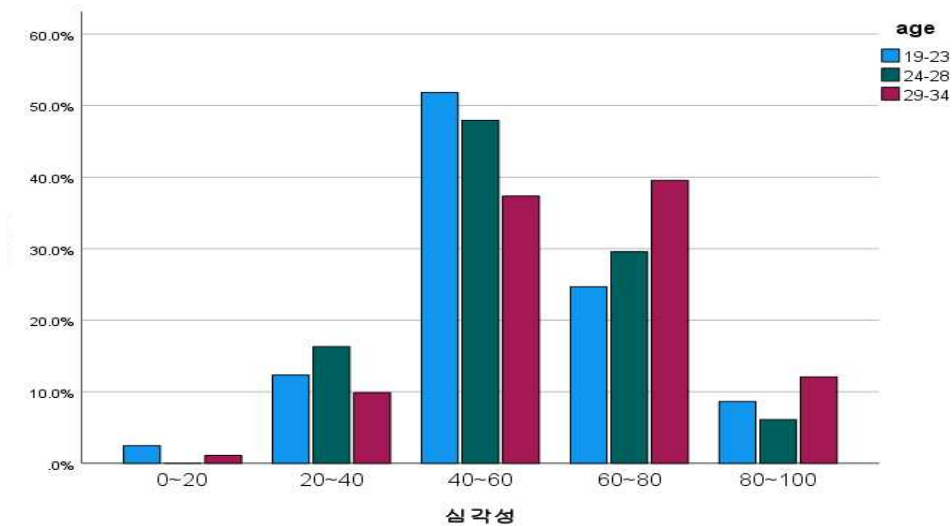
김민규, 이현주, 이혜슬, 황유정, 손인서

I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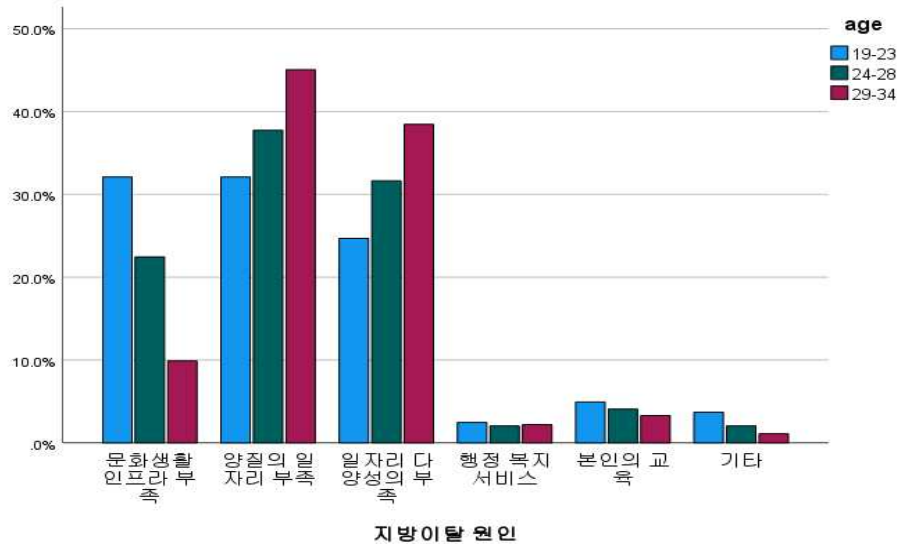
-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지방이탈'을 막아라_[2023.03.17. 미디어 뉴스]
- 창원, 100만 명 붐괴 위기 - 비수도권 특례시 사라지나_[2023.10.25. 경향신문]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방이탈 현상을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이탈의 인식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지방이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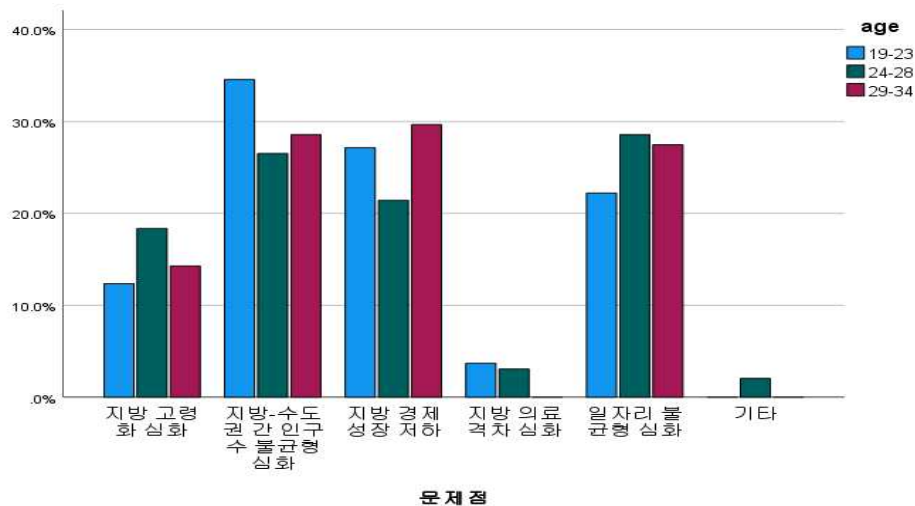
[그림 1 요약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심각성]

- 만 19~23세와 만 24~29세 나이대는 심각성 비율이 '40~60%', 만 29~34세는 '60~80%'에 응답률이 가장 높다.
- 응답자의 45.6%가 지방이탈의 심각성 비율이 '40%~60%' 정도라고 체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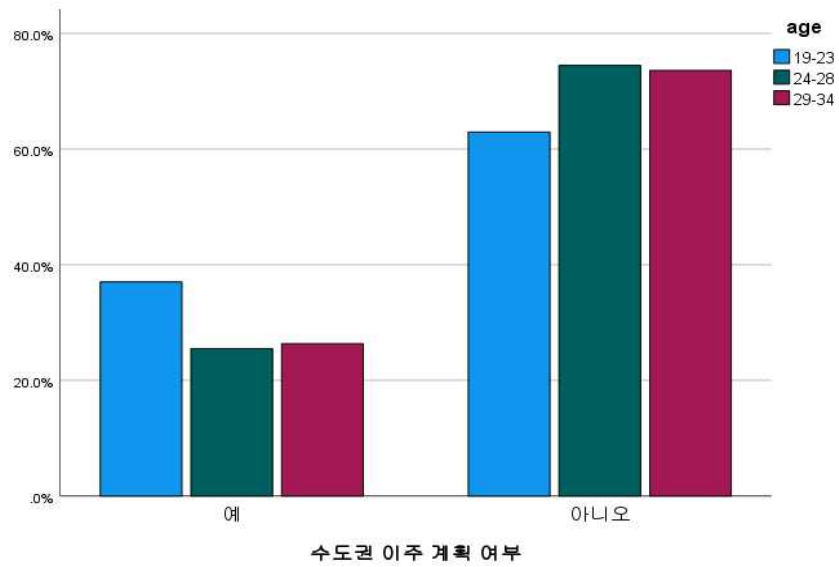
[그림 2 요약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양질의 일자리’ 및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각 나이대마다 만 19~23세는 56.8%, 만 24~28세는 69.4%, 만 29~34세는 83.6%를 차지하고 있다.
- 만 19~23세는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32.1%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 요약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 만 19~23세는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가 34.6%로 가장 높다.
- 만 24~28세는 ‘일자리 불균형 심화’가 28.5%로 가장 높다.
- 만 29~34세는 ‘지방 경제 성장 저하’가 29.7%로 가장 높다.



[그림 4 요약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해 거주할 계획 여부]

-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는 만 19~23세는 '예'에 대한 응답률 37.0%, '아니오'에 대한 응답이 63.0%.
- 만 24~28세는 '예'에 대한 응답률 25.5%, '아니오'에 대한 응답률 74.5%.
- 만 29~34세는 '예'에 대한 응답률 26.4%, '아니오'에 대한 응답률 73.6%.

Ⅱ. 조사 설계

1) 조사 배경 및 목적

-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지방이탈'을 막아라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약 5174만 명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인구가 약 2,6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4%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심각한데, 최근에는 청년의 지방이탈이 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특히, 동남지역통계청은 작년 디지털 심화(Digital Intensity) 관점에서 본 동남권 산업구조의 변화를 발표했는데, 10~30대 순유출 인구 중 수도권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89.0%이며, 20대 수도권 순유출 인구 비중은 93.4%에 달한다.

[2023.03.17. 미디어유스]

- 창원, 100만 명 붕괴 위기...비수도권 특례시 사라지나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 유지를 위해 인구 사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2025년쯤 인구 100만 명대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이지만 청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101만 2410명이다.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108만1808명) 보다 6만 9398명 감소한 규모다. 통합 이듬해 창원 인구는 109만188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12년 만에 7만9471명이나 줄었다. 이러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창원시는 2025년부터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인다.

[2023.10.25. 경향신문]

- 위 기사를 통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방이탈 현상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며 지방 소멸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현상을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이탈의 인식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지방이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모집단의 정의

- 목표 모집단 : 조사 시점 기준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
- 조사 가능 모집단 : 편의추출법으로 표본 추출함에 따라 생략
*조사단위 선정에서 구체화
- 조사단위 :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개인

3) 표본 크기, 표본 배분

- 표본 크기 : 270명
- 편의추출법 : 창원시의 지역 마산, 창원, 진해 각 지역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상남동, 용호동, 합성동, 석동을 선정하여 창원시 거주 청년 (만 19~34세) 270명을 편의로 추출하여 설문 요청.

4) 응답자 선정 및 조사 과정

- 조사단위 선정 : 조사 지역(상남동, 용호동, 합성동, 석동)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나이와 창원시 거주 여부를 물어본 후, 조건에 맞는 창원시 거주 청년 (만 19~34세) 270명에게 설문 진행.
- 조사 기간 : 5.15 - 5.24 (2024)
- 사은품 : 구강청결제 100mL (개당 1,440원 X 280개)

5) 자료수집 방법

: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Ⅲ. 설문지 작성

1) 측정목표

< 표 0 - 측정목표 테이블 >

인적 사항	기본사항	성별
		나이(만 19~34 세)
		직업(폐쇄형)
인식 조사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국내 지방이탈에 대한 심각성 인지 여부
		국내의 지방이탈에 대한 주요 원인
		지방이탈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지방이탈 관련 조사 항목	수도권 지방이탈에 대한 이탈 계획	수도권 이탈 계획 여부
		이탈 계획 지역
		이탈 이유(개방형)
		수도권 이주 후 돌아올 의향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 지방이탈에 대한 이탈 계획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 이탈 계획 여부
		타지역 이동 이유(개방형)
개선 방안	창원시 거주 만족도	문화생활 인프라
		일자리
		교통(환경, 교통체증 등)
		교육 인프라
		경제(물가, 부동산 등)
		행정/복지 서비스
		창원시 거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창원시 지역 장/단점	창원시 지역 장/단점
	창원시 정책	창원시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 혜택 경험 유무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이 지방이탈을 줄이는데 도움 여부
		창원시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잘 시행되는 정책
		창원시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방이탈 개선 방안	자유로운 의견(개방형)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예비조사

- 1차
 - 인원 : 20명
 - 조사 대상 : 창원대학교 재학생
 - 조사 시기 : 04.19 (2024)

- 2차
 - 인원 : 19명
 - 조사 대상 : 창원대학교 본부 직원 및 교내 농협 은행 직원
 - 조사 시기 : 04.26 (2024)

- 3차
 - 인원 : 26명
 - 조사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 인근 창원시민
 - 조사 시기 : 05.06 (2024)

- 조사 목적
 - 개방형 문항을 응답에 따라 폐쇄형 질문으로 바꾸기 위함.
 - 각 문항이 의미하는 바가 응답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확인.
 - 응답자들이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 설문 소요 시간 및 예상 조사 기간 확인.
 - 응답자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피드백 요청.

-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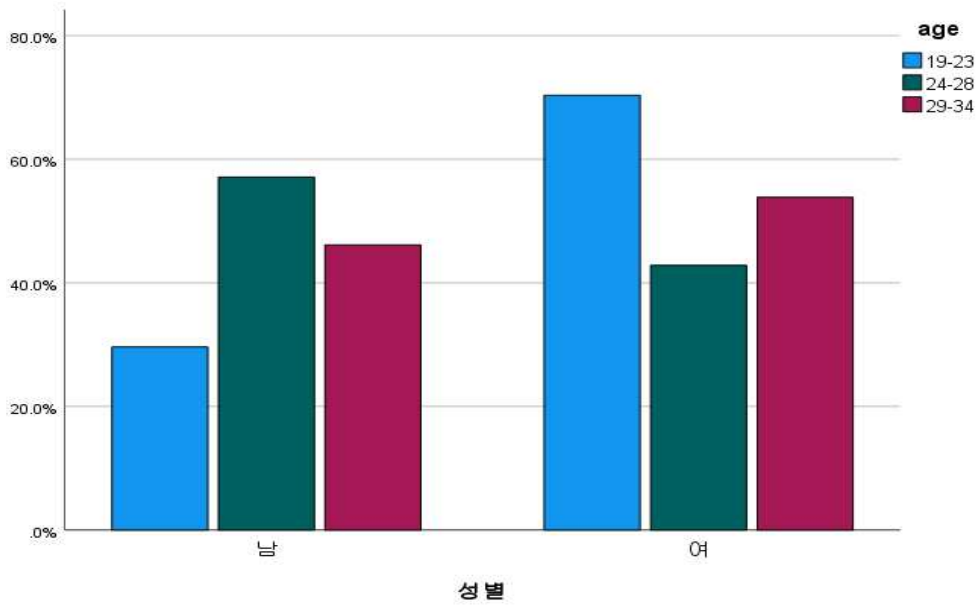
- Q3 인적란에 '프리랜서'라는 항목 추가
- Q4 질문에서 '지방이탈 체감도'라는 의미가 모호함에 따라 지방이탈 심각성으로 수정.
- Q5 문항에서 '일자리 부족'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약 50%의 응답이 해당 번호로 물림을 확인하여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다양성의 부족'으로 분리.
- Q5, Q6 문항에서 각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함.
- Q6, Q8 개방형 문항에서 폐쇄형 문항으로 수정.
- Q10 리커트척도 문항의 무성익한 응답을 줄이기 위해 글자 수를 최소화하여 가시성을 높임
- Q10-7 에서 자기 기입식 기타 만족도가 응답률이 낮음에 따라 제거, 창원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수정함.
- Q12 청년 지원 사업 혜택 경험 유무에 따라, 각 선택지에 대한 만족도 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관련 꼬리 문항을 수정함.
- Q13 청년 지원 정책이 지방이탈률에 영향을 주는가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항 추가.
- Q14, Q15 문항에서 정책과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나, 개선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수정함.
- 전체적으로 문항 순서와 글자 배열 및 크기를 수정하여 가시성을 높임.
- 예비 조사에서 응답률이 0인 항목 삭제.
- Q12~Q16 개선사항 관련 문항에서 국내와 창원시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아닌, 창원시에서 시행할 개선 방안 모색에 집중.
- 응답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의 항목에 기타를 추가
- 응답자들이 중복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질문에 각 '한 가지만'이라는 단어를 추가 및 강조

* 1차 -> 2차 -> 3차 -> 최종 설문지로 총 3번의 설문지 수정을 축약하여 작성

Ⅳ.분석결과

1. 인적사항

[조사대상자 성별 및 나이 - Q1, Q2]



[그림 5 - 조사대상자 성별 및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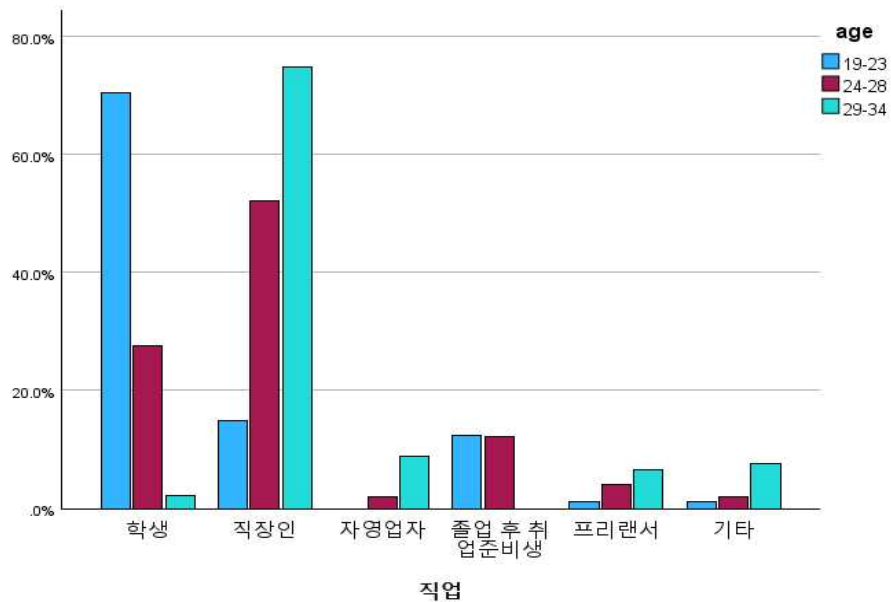
< 표 1 - 조사대상자 성별 및 나이 >

(단위: %, 명)

나이 \ 성별	성별		응답자 수
	남	여	
19~23세	29.6	70.4	81
24~28세	57.1	42.9	98
29~34세	46.2	53.8	91
전체	45.2	54.8	270

- 만 19~23세 응답자 중 남자는 29.6%, 여자는 70.4%.
- 만 24~28세 응답자 중 남자는 57.1%, 여자는 42.9%.
- 만 39~34세 응답자 중 남자는 46.2%, 여자는 53.8%.

[조사대상자 직업 - 나이 교차분석 - Q3]



[그림 6 - 조사대상자 직업 - 나이 교차분석]

< 표 2 - 조사대상자 직업 - 나이 교차분석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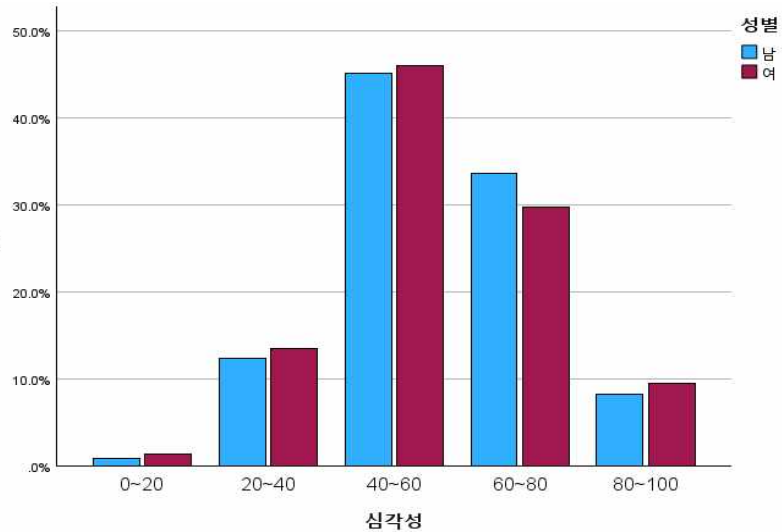
직업 \ 나이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졸업 후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70.4	14.8	0.0	12.3	1.2	1.2	81
24~28세	27.6	52.0	2.0	12.2	4.1	2.0	98
29~34세	2.2	74.7	8.8	0.0	6.6	7.7	91
전체	31.9	48.5	3.7	8.1	4.1	3.7	270

-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만 19~23세의 응답자의 직업은 70.4%로 학생 비율이 높고, 만 24~28세의 응답자의 직업은 52.0%로 직장인의 비율이 높다. 만 29~34세의 응답자의 직업 또한 74.7%의 비율로 직장인이 가장 높으며, 자영업자(8.8%), 기타 직업군(7.7%), 프리랜서(6.6%)이다.
- 기타 응답의 경우 10명 중, 공무원(2), 교사(2), 무직(3), 주부(2), 이직 희망(1)으로 나타난다.

2.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사항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¹⁾-Q4]

(1) 성별



[그림 7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표 3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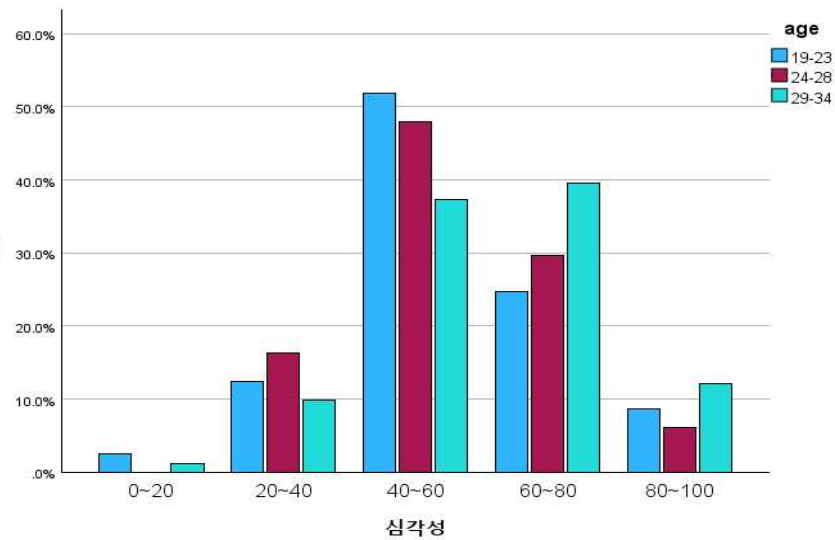
(단위: %, 명)

성별 \ 심각성	0~20	20~40	40~60	60~80	80~100	응답자 수
남	0.8	12.3	45.1	33.6	8.2	122
여	1.4	13.5	45.9	29.7	9.5	148
전체	1.1	13.0	45.6	31.5	8.9	270

- 남자와 여자 모두 심각성 체감 정도 '40~60%'에 각각 45.1%, 45.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나며,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국내에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현상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십니까” 문항에 대해 0~100% 사이의 값.

(2) 나이



[그림 8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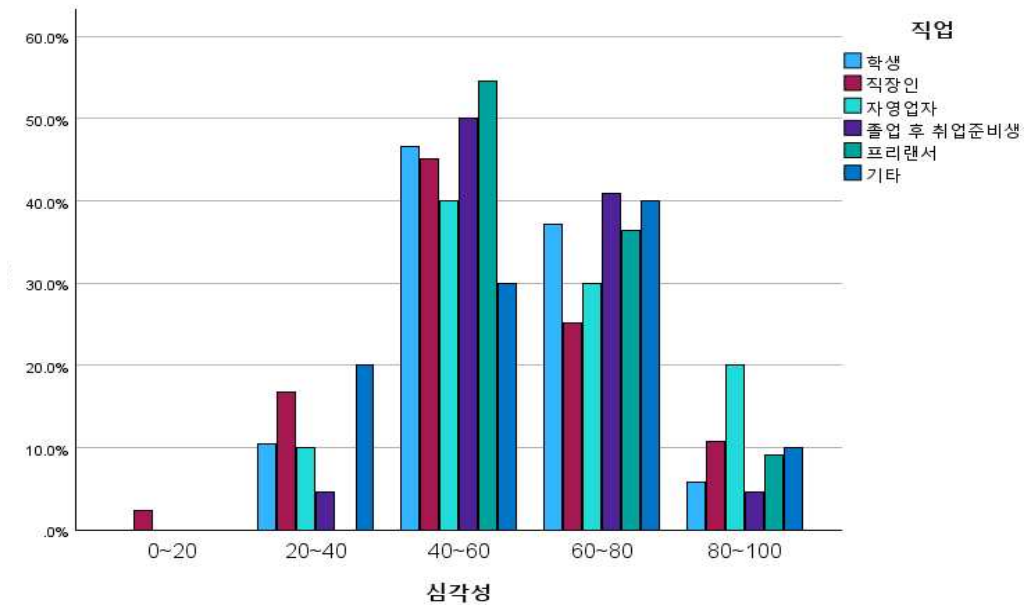
< 표 4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단위: %, 명)

심각성 나이	0~20	20~40	40~60	60~80	80~100	응답자 수
19~23세	2.5	12.3	51.9	24.7	8.6	81
24~28세	0.0	16.3	48.0	29.6	6.1	98
29~34세	1.1	9.9	37.4	39.6	12.1	91
전체	1.1	13.0	45.6	31.5	8.9	270

- 전체적으로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심각성은 '40~60%', '60~80%'에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 19~23세에서는 지방이탈 심각성 체감 정도(%)에 대해 '40~60%'라고 응답한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다. 24~28세에서 또한 '40~60%'에 48.0%가 응답하며 가장 높았지만 이와 다르게 만 29~34세에서는 '60~80%'에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직업



[그림 9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표 5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 현상의 심각성 체감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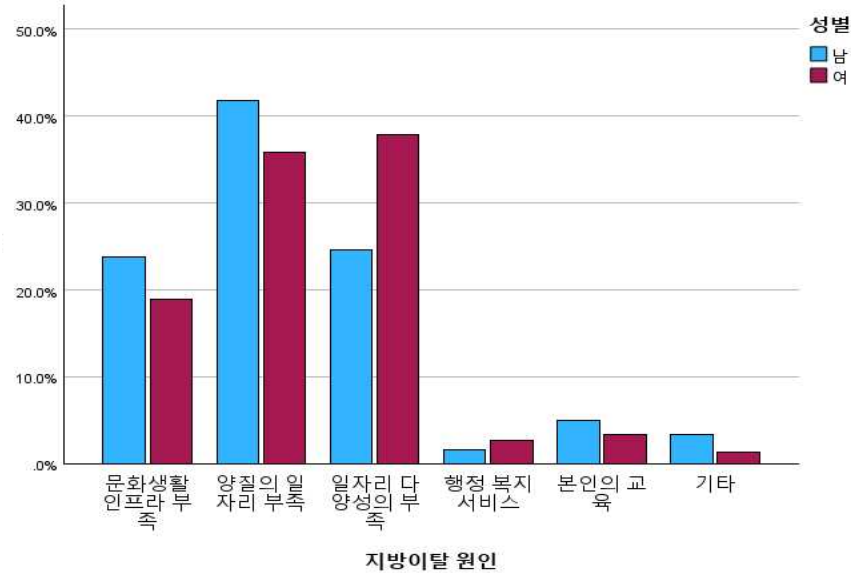
(단위: %, 명)

심각성 \ 직업	0~20	20~40	40~60	60~80	80~100	응답자 수
학생	0.0	10.5	46.5	37.2	5.8	86
직장인	2.3	16.8	45.0	25.2	10.7	131
자영업자	0.0	10.0	40.0	30.0	20.0	10
졸업 후 취업준비생	0.0	4.5	50.0	40.9	4.5	22
프리랜서	0.0	0.0	54.5	36.4	9.1	11
기타	0.0	20.0	30.0	40.0	10.0	10
전체	1.1	13.0	45.6	31.5	8.9	270

- 지방이탈 심각성 '40~60%'에 대한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졸업 후 취업준비생, 프리랜서는 응답 비율이 각각 46.5%, 45%, 40%(n=10), 50%, 54.5%(n=1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기타 직업군을 가진 응답자는 '60~80%'의 비율이 40%(n=10)로 높게 나타난다.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Q5] * 5-6 기타 개방형

(1) 성별



[그림 10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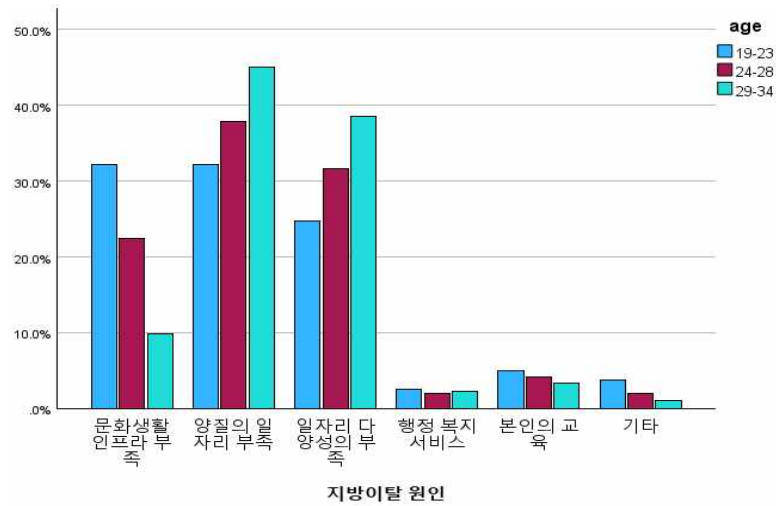
< 표 6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단위: %, 명)

원인 성별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다양성 부족	행정 복지 서비스	본인의 교육	기타	응답자 수
남	23.8	41.8	24.6	1.6	4.9	3.3	122
여	18.9	35.8	37.8	2.7	3.4	1.4	148
전체	21.1	38.5	31.9	2.2	4.1	2.2	270

- 남자는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4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일자리 다양성 부족'은 24.6%,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은 23.8%의 응답률을 보인다.
- 여자는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다양성 부족'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35.8%의 응답률을 보인다.

(2) 나이



[그림 11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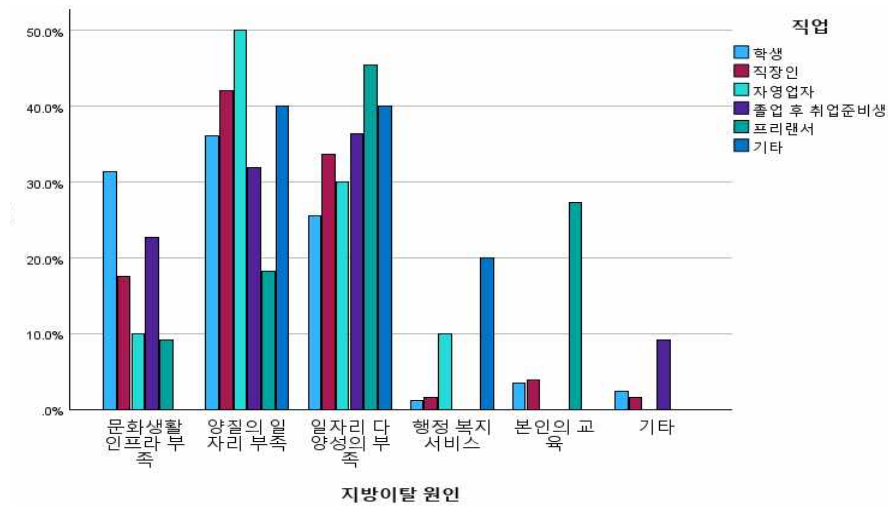
< 표 7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단위: %, 명)

원인 나이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다양성 부족	행정 복지 서비스	본인의 교육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32.1	32.1	24.7	2.5	4.9	3.7	81
24~28세	22.4	37.8	31.6	2.0	4.1	2.0	98
29~34세	9.9	45.1	38.5	2.2	3.3	1.1	91
전체	21.1	38.5	31.9	2.2	4.1	2.2	270

- 만 19~23세에서는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모두 3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만 24~28세, 만 29~34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항목에 각각 37.8%, 4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모든 연령대에서 지방이탈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본다.

(3) 직업



[그림 12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표 8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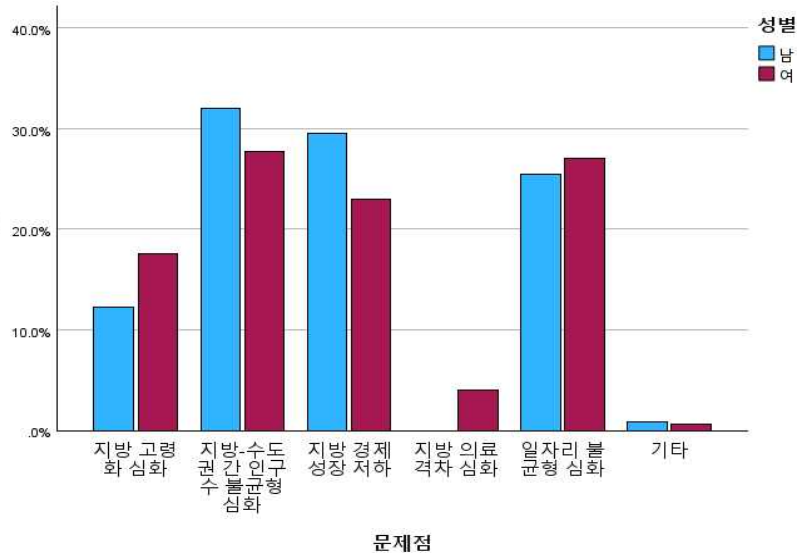
(단위: %, 명)

원인 \ 직업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다양성 부족	행정 복지 서비스	본인의 교육	기타	응답자 수
학생	31.4	36.0	25.6	1.2	3.5	2.3	86
직장인	17.6	42.0	33.6	1.5	3.8	1.5	131
자영업자	10.0	50.0	30.0	10.0	0.0	0.0	10
졸업 후 취업준비생	22.7	31.8	36.4	0.0	0.0	9.1	22
프리랜서	9.1	18.2	45.5	0.0	27.3	0.0	11
기타	0.0	40.0	40.0	20.0	0.0	0.0	10
전체	21.1	38.5	31.9	2.2	4.1	2.2	270

-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는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을 '양질의 일자리 부족' 항목에 각각 36.0%, 42.0%, 50.0%(n=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보인다.
- 졸업 후 취업준비생, 프리랜서는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을 '일자리 다양성 부족' 항목에 각각 36.4%, 45.5%(n=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보인다.
- 기타 직업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다양성 부족' 항목에 동일한 비율인 40.0%(n=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보인다.
- 청년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에서 기타 응답으로는 '20대 모임 콘텐츠 부족', '수도권 네임벨류'로 나왔다.

[지방이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 Q6]

(1) 성별



[그림 13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표 9 - 성별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단위: %, 명)

문제점 성별	지방 고령화 심화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지방 경제 성장 저하	지방 의료 격차 심화	일자리 불균형 심화	기타	응답자 수
남	12.3	32.0	29.5	0.0	25.4	0.8	122
여	17.6	27.7	23.0	4.1	27.0	0.7	148
전체	15.2	29.6	25.9	2.2	26.3	0.7	270

- 남자는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32%, '지방 경제 성장 저하' 29.5%, '자리 불균형 심화' 25.4% 순으로 응답했다.
- 여자는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27.7%, '일자리 불균형 심화' 27.0%, '지방경제 성장 저하' 23.0% 순으로 응답했다.

(2) 나이



[그림 14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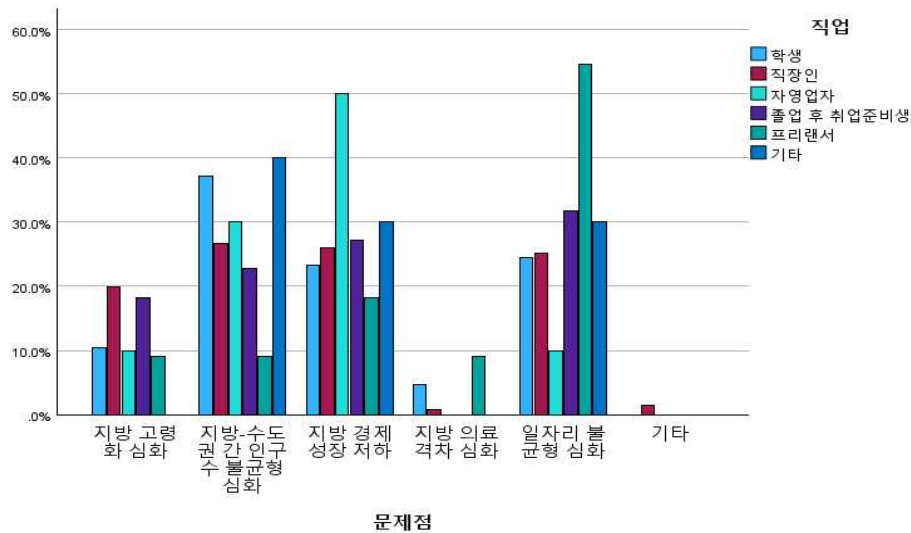
< 표 10 - 나이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단위: %, 명)

문제점 나이	지방 고령화 심화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지방 경제 성장 저하	지방 의료 격차 심화	일자리 불균형 심화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12.3	34.6	27.2	3.7	22.2	0.0	81
24~28세	18.4	26.5	21.4	3.1	28.6	2.0	98
29~34세	14.3	28.6	29.7	0.0	27.5	0.0	91
전체	15.2	29.6	25.9	2.2	26.3	0.7	270

- 만 19~23세는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34.6%, '경제 성장 저하' 27.2%, '일자리 불균형 심화' 22.2% 순으로 나타난다.
- 만 24~28세는 '일자리 불균형 심화' 28.6%,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26.5%, '지방 경제 성장 저하' 21.4% 순으로 나타난다.
- 만 29~34세는 '지방 경제 성장 저하' 29.7%,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가 28.6%, '일자리 불균형 심화' 27.5% 순으로 나타난다.

(3) 직업



[그림 15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표 11 - 직업에 따른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문제점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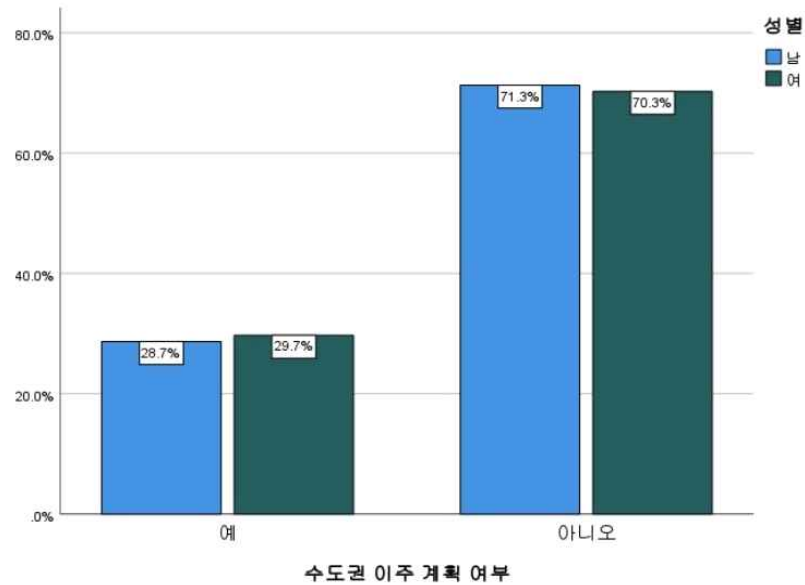
문제점 직업	지방 고령화 심화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	지방 경제 성장 저하	지방 의료 격차 심화	일자리 불균형 심화	기타	응답자 수
학생	10.5	37.2	23.3	4.7	24.4	0.0	86
직장인	19.8	26.7	26.0	0.8	25.2	1.5	131
자영업자	10.0	30.0	50.0	0.0	10.0	0.0	10
졸업 후 취업준비 생	18.2	22.7	27.3	0.0	31.8	0.0	22
프리랜서	9.1	9.1	18.2	9.1	54.5	0.0	11
기타	0.0	40.0	30.0	0.0	30.0	0.0	10
전체	15.2	29.6	25.9	2.2	26.3	0.7	270

- 학생, 직장인은 '지방-수도권 인구수 불균형'이 각각 37.2%, 26.7%, 자영업자는 '지방 경제 성장 저하' 50.0%(n=10), 졸업 후 취업준비생, 프리랜서는 '일자리 불균형 심화' 각각 31.8%, 54.5%(n=1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다.
- 기타 직업군은 '지방-수도권 간 인구수 불균형 심화'가 40.0%(n=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타난다.
- 지방이탈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점의 기타 응답으로는 '지방 인프라 부족', '지역 차별'이 나왔다.

3. 창원시 지방이탈과 관련한 조사 사항

[창원시 ->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여부-Q7]

(1) 성별



[그림 16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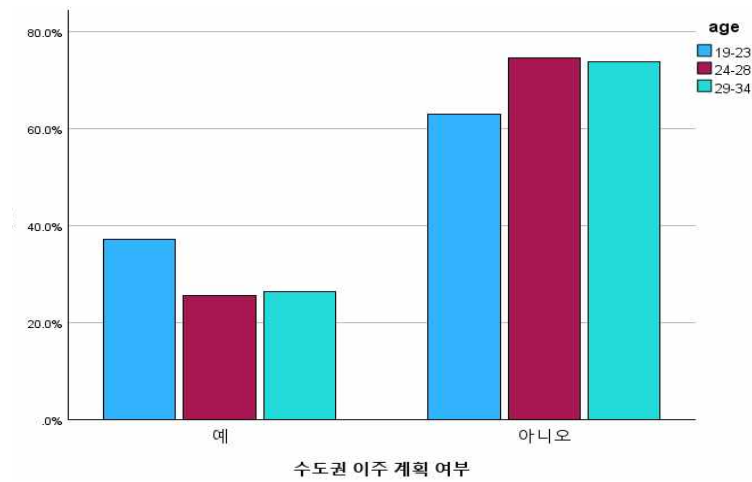
< 표 12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단위: %, 명)

성별 \ 수도권 이주 계획	예	아니오	응답자 수
남	28.7	71.3	122
여	29.7	70.3	148
전체	29.3	70.7	270

- 남녀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성별에 따른 '아니오'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71.3%, 70.3%로 높게 나타난다.

(2) 나이



[그림 17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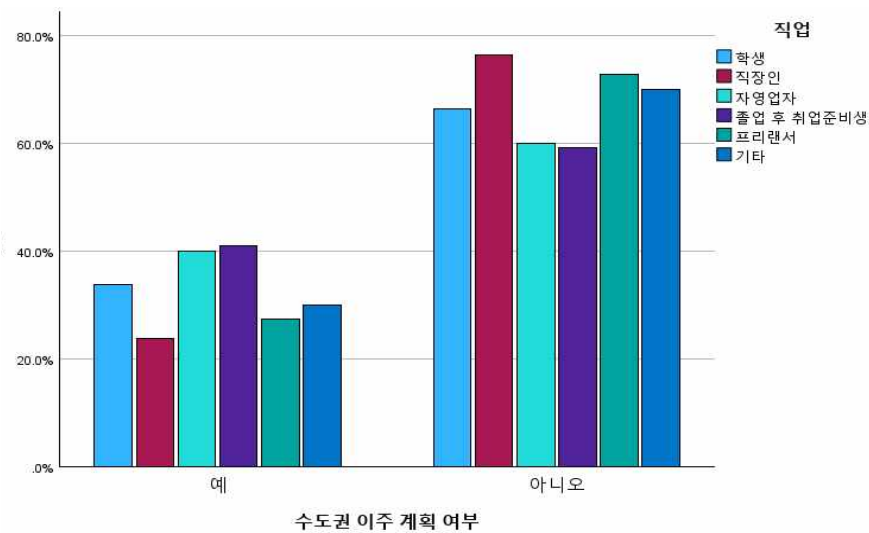
< 표 13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단위: %, 명)

나이 \ 수도권 이주 계획	예	아니오	응답자 수
19~23세	37.0	63.0	81
24~28세	25.5	74.5	98
29~34세	26.4	73.6	91
전체	29.3	70.7	270

-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에 대해 '예'에 응답한 비율 중 만 19~23세가 37.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에 대해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은 만 19~23세는 63%, 만 24~28세는 74.5%, 만 29~34세는 73.6%로 응답 결과가 나타난다.

(3) 직업



[그림 18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표 14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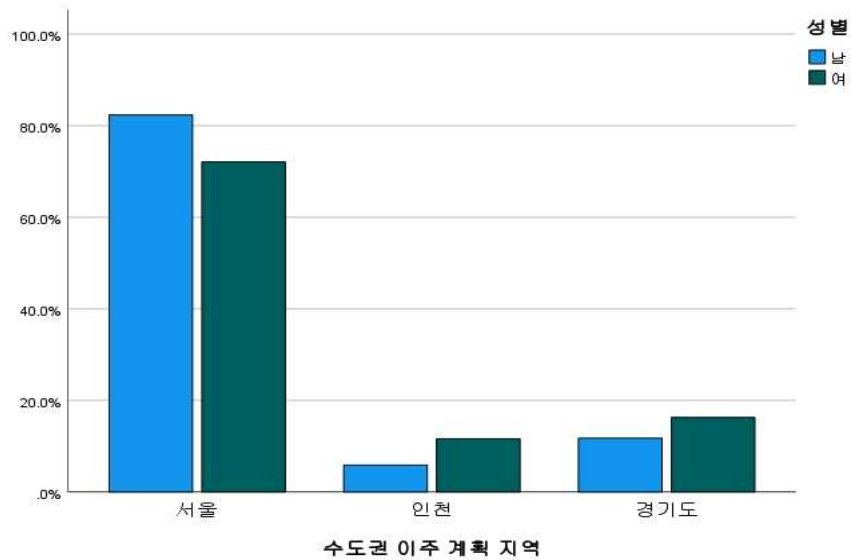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수도권 이주 계획	예	아니오	응답자 수
학생	33.7	66.3	86
직장인	23.7	76.3	131
자영업자	40.0	60.0	10
졸업 후 취업준비생	40.9	59.1	22
프리랜서	27.3	72.7	11
기타	30.0	70.0	10
전체	29.3	70.7	270

- 각 직업별 수도권 이주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 40.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학생이나 직장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각각 33.7%, 23.7%, 27.3%(n=1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아니오'로 응답 비율이 직장인이 7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예'에 대한 응답보다 '아니오'에 대한 응답이 70.7%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Q8_1]

(1) 성별



[그림 19 - 성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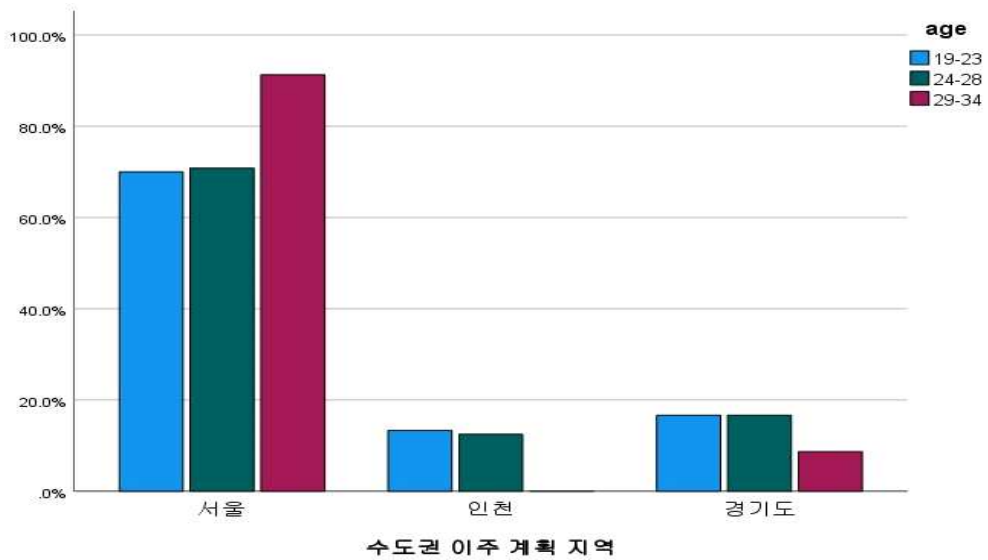
< 표 15 - 성별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단위: %, 명)

성별 \ 수도권 이동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응답자 수
남	82.4	5.9	11.8	34
여	72.1	11.6	16.3	43
전체	76.6	9.1	14.3	77

- 수도권 이동 지역에서 서울에 응답한 남자, 여자 비율이 각각 82.4%,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2) 나이



[그림 20 - 나이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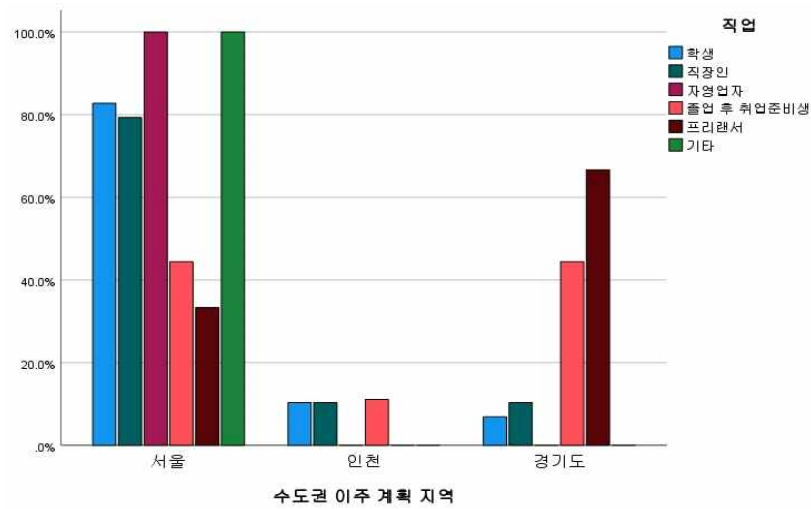
< 표 16 - 나이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단위: %, 명)

수도권 이동 지역 나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응답자 수
19~23세	70	13.3	16.7	30
24~28세	70.8	12.5	16.7	24
29~34세	91.3	0.0	8.7	23
전체	76.6	9.1	14.3	77

- 수도권 이동 지역에 '서울'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만 29~34세 비율이 91.3%로 나타나며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만 19~23세, 만 24~28세에 따른 서울을 제외한 각각의 이동 지역 비율은 비슷한 응답률로 나타난다

(3) 직업



[그림 21 - 직업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표 17 - 직업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이동 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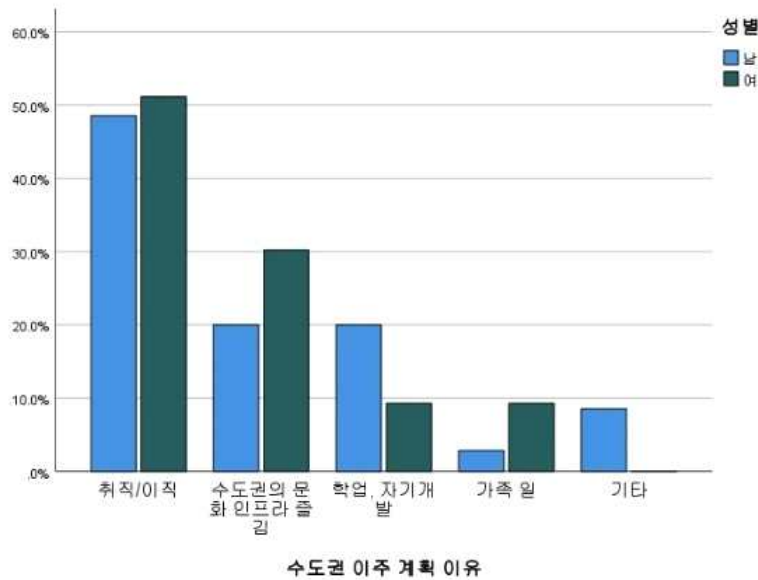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수도권 이동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응답자 수
학생	82.8	10.3	6.9	29
직장인	79.3	10.3	10.3	29
자영업자	100.0	0.0	0.0	4
졸업 후 취업준비생	44.4	11.1	44.4	9
프리랜서	33.3	0.0	66.7	3
기타	100.0	0.0	0.0	3
전체	76.6	9.1	14.3	77

- '서울'에 응답한 비율은 학생 82.8%, 직장인 79.3%, 졸업 후 취업준비생 44.4%(n=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서울', '경기도'의 응답 비율이 44.4%(n=9)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2명이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이유- Q8_2] * 구체적 이유 개방형

(1) 성별



[그림 22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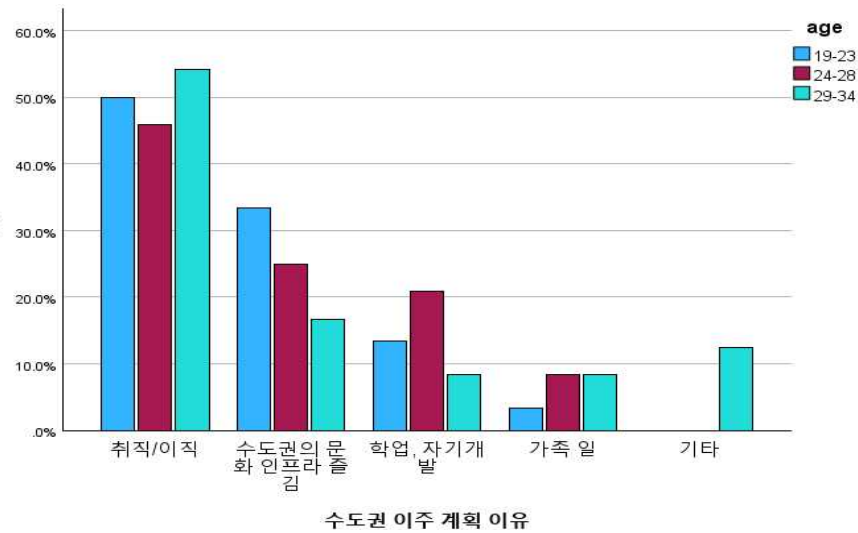
< 표 18 -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단위: %, 명)

성별 \ 수도권 이주 이유	취직/이직	수도권 문화 인프라	학업, 자기개발	가족 일	기타	응답자 수
남	48.6	20.0	20.0	2.9	8.6	35
여	51.2	30.2	9.3	9.3	0.0	43
전체	50.0	25.6	14.1	6.4	3.8	78

- 남자는 '취직/이직' 응답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 문화 인프라 즐기기 위함', '학업', '자기개발'이 20%로 높게 나타난다.
- 여자는 '취직/이직', '수도권 문화 인프라 즐김' 순으로 각각 51.2%, 3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2) 나이



[그림 23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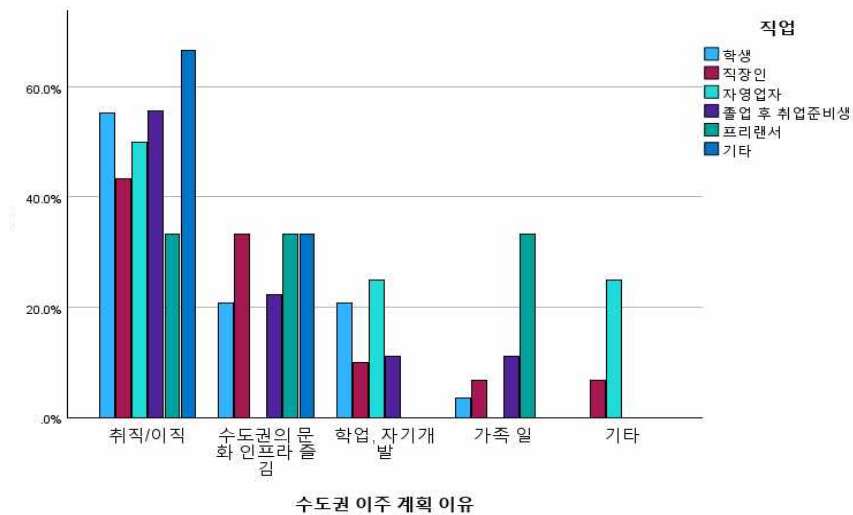
< 표 19 - 나이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단위: %, 명)

수도권 이주 이유 나이	취직/이직	수도권 문화 인프라 즐기	학업, 자기개발	가족 일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50.0	33.3	13.3	3.3	0.0	30
24~28세	45.8	25.0	20.8	8.3	0.0	24
29~34세	54.2	16.7	8.3	8.3	12.5	24
전체	50.0	25.6	14.1	6.4	3.8	78

-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 이유로는 만 19~23세는 '취직/이직'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함'이 33.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 만 24~28세는 '취직/이직'의 이유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함'이 25.0%, '학업과 자기개발'의 이유가 20.8%로 뒤따른다.
- 만 29~34세 또한 '취직/이직'의 비율이 54.2%로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함'이 16.7%로 뒤따른다.

(3) 직업



[그림 24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표 20 - 직업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단위: %, 명)

수도권 이주 이유 직업	취직/이직	수도권 문화 인프라 즐김	학업, 자기개발	가족 일	기타	응답자 수
학생	55.2	20.7	20.7	3.4	0.0	29
직장인	43.3	33.3	10.0	6.7	6.7	30
자영업자	50.0	0.0	25.0	0.0	25.0	4
졸업 후 취업준비생	55.6	22.2	11.1	11.1	0.0	9
프리랜서	33.3	33.3	0.0	33.3	0.0	3
기타	66.7	33.3	0.0	0.0	0.0	3
전체	50.0	25.6	14.1	6.4	3.8	78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에서 '취직/이직'의 응답 비율이 학생 55.2%, 직장인 43.3%, 자영업자 50%(n=4), 졸업 후 취업준비생 55.6%(n=9), 기타 직업군 66.7%(n=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프리랜서의 응답 비율은 '취직/이직', '수도권 문화 인프라 즐기기 위함', '가족 일'이 33.3%(n=3)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1명이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이유 - 구체적 이유]

< 표 21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취직/이직 구체적 이유 >

(단위: %, 명)

직종	금융/회계	기술직(반도체, IT 등)	사무직(공무원, 행정)	의료 종사자	기타	응답자 수
빈도	5	9	5	5	3	27
비율	18.5	33.3	18.5	18.5	11.1	100.0

- 취직/이직으로 인해 수도권 이주 계획을 가진 응답자들은 '기술직(반도체, IT 등)'의 직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33.3%로 가장 높으며, '금융/회계', '사무직(공무원, 행정)', '의료 종사자'가 각각 18.5%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 기타 응답의 경우 '스포츠/운동'과 '방송직' 등이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15명이다.

< 표 22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구체적 이유 >

(단위: %, 명)

구체적 이유	공연	전시	복합 문화공간	기타	응답자 수
빈도	7	7	5	4	23
비율	30.4	30.4	21.7	17.4	100.0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중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다중분석을 하였음.

-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함으로 인해 수도권 이주 계획을 가진 응답자들의 구체적 문화 인프라 종류는 '공연', '전시'가 각각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다음으로는 '복합문화 공간'이 21.7%로 나타난다.
- '공연'과 '전시'는 '페스티벌', '전시회', '미술관' 등의 응답이 나타난다.
- 기타 응답에는 '맛집', '작가 행사', '패션' 등이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8명이다.

< 표 23 -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학업, 자기개발 구체적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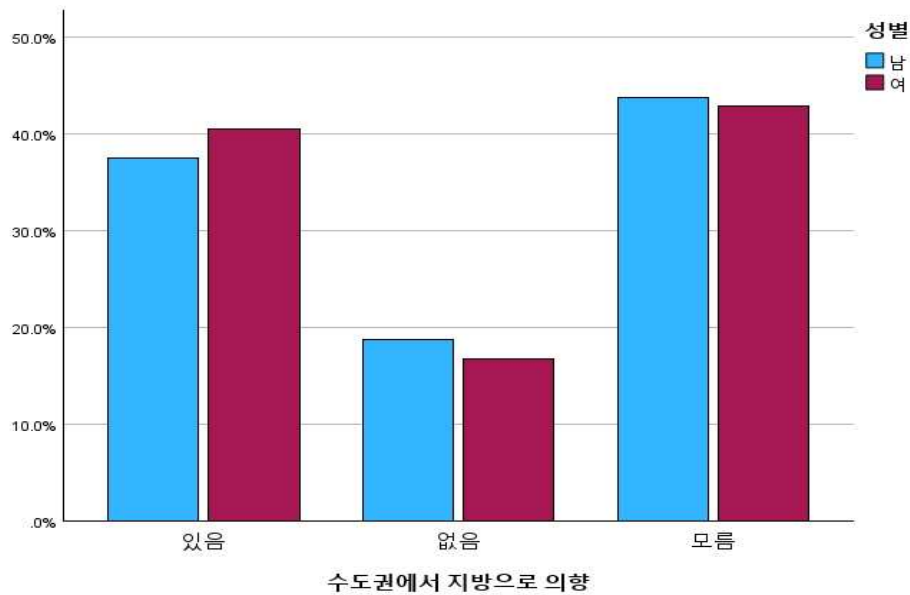
(단위: %, 명)

분야	대학 및 대학원 진학	은행 본점 근무	요식업	의류	응답자 수
빈도	3	1	1	1	6
비율	50	16.7	16.7	16.7	100.0

- '학업, 자기개발'로 인해 수도권 이주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총 6명 중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이 3명, 은행 본점 근무, 요식업, 의류가 각 1명씩 응답이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5명이다.

[수도권으로 이주 후 지방으로 다시 돌아올 의향 - Q8_3]

(1) 성별



[그림 25 - 성별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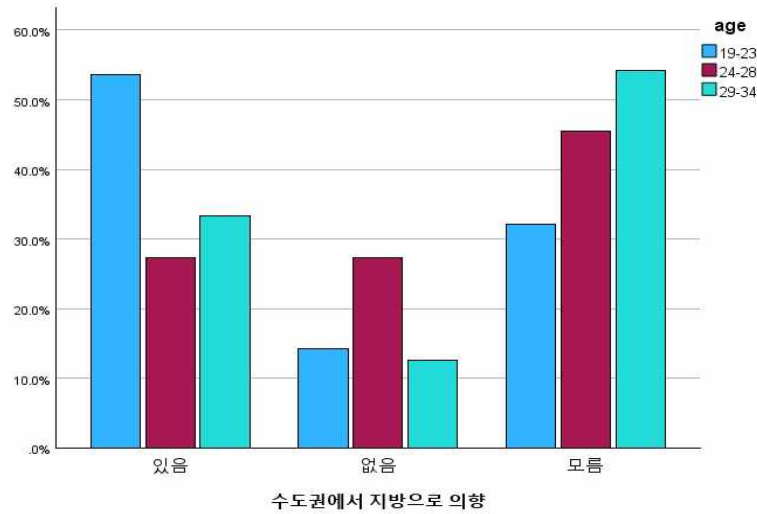
< 표 24 - 성별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단위: %, 명)

성별	수도권 -> 지방 의향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남		37.5	18.8	43.8	32
여		40.5	16.7	42.9	42
전체		39.2	17.6	43.2	74

- 수도권으로 이주 후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은 성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이



[그림 26 - 나이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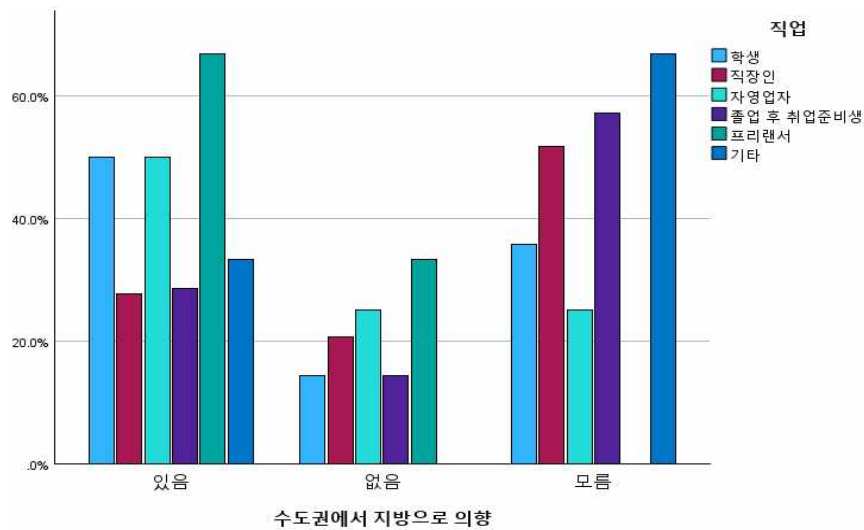
< 표 25 - 나이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단위: %, 명)

수도권 -> 지방 의향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나이				
19~23세	53.6	14.3	32.1	28
24~28세	27.3	27.3	45.5	22
29~34세	33.3	12.5	54.2	24
전체	39.2	17.6	43.2	74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에서 '있음'에 응답한 비율이 39.2%로 높게 나타나며, 만 19~23세 응답 비율이 53.6%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 만 24~28세는 '있음', '없음' 응답 비율이 각각 27.3%로 동일하다.

(3) 직업



[그림 27 - 직업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표 26 - 직업에 따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

(단위: %, 명)

수도권 -> 지방 의향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학생	50.0	14.3	35.7	28
직장인	27.6	20.7	51.7	29
자영업자	50.0	25.0	25.0	4
졸업 후 취업준비생	28.6	14.3	57.1	7
프리랜서	66.7	33.3	0.0	3
기타	33.3	0.0	66.7	3
전체	39.2	17.6	43.2	74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에서 '있음' 응답 비율이 학생 50%, 자영업자 50%(n=4), 프리랜서 66.7%(n=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에서 '모름' 응답 비율이 직장인 51.7%, 졸업 후 취업준비생 57.1%(n=7), 기타 직업군 66.7%(n=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5명이다.

< 표 27 - 직업, 이주 계획지역, 취직/이직 직종 중 빈도수가 높은 항목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교차표>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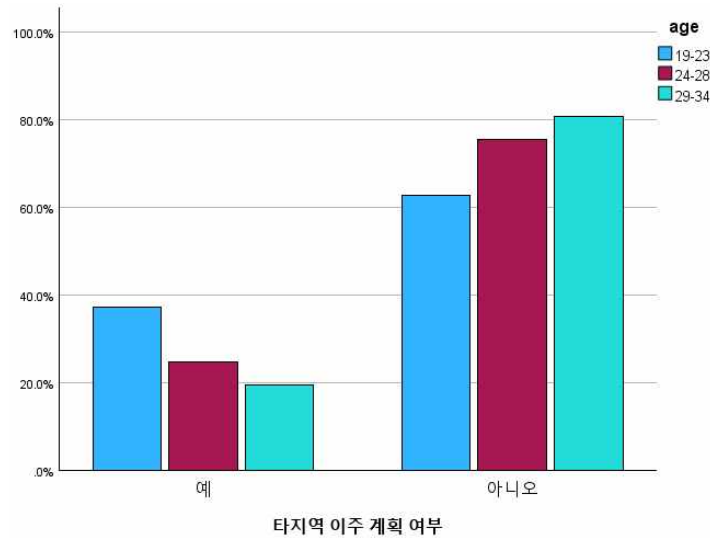
수도권 -> 지방 의향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			응답자 수
		있음	없음	모름	
수도권 이주 계획 지역	서울	35.1	15.8	49.1	57
취직/이직 직종	기술직(반도체, it 등)	50.0	12.5	37.5	8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취직/이직	41.7	13.9	44.4	36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즐김	36.8	36.8	26.3	19

- 이주를 계획하는 지역에서 총 57명의 서울 응답자 중 35.1%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음'으로 응답이 나타난다.
- '취직/이직'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진 응답자는 기술직 직종에서 50%(n=8)의 응답자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음'으로 응답이 나타난다.

*응답자 수가 너무 작아 본문에 포함 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에 있음.

[타지역 이주계획 여부-9_1]

(1) 나이



[그림 28 - 나이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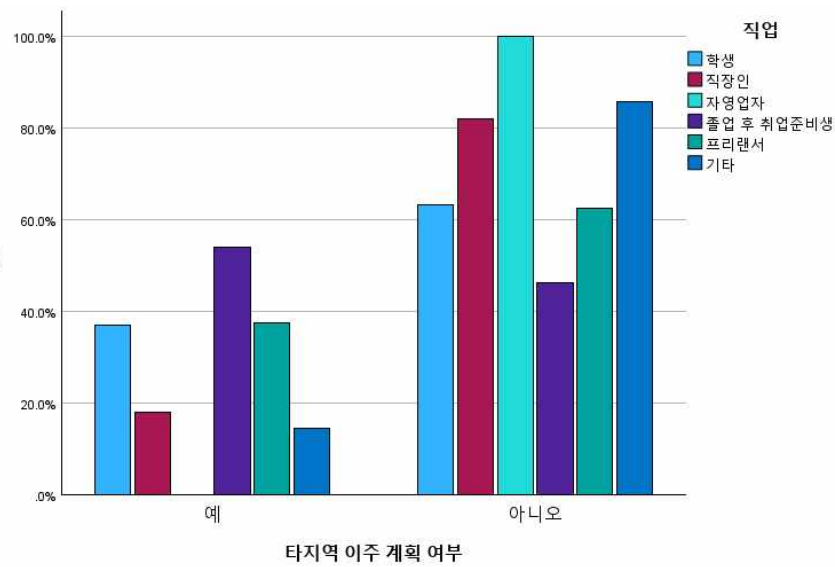
< 표 28 - 나이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

(단위: %, 명)

나이 \ 타지역 이주 계획	예	아니오	응답자 수
19~23세	37.3	62.7	51
24~28세	24.7	75.3	73
29~34세	19.4	80.6	67
전체	26.2	73.8	191

-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만 19~23세 37.3%, 만 24~28세 24.7%, 만 29~34세 19.4%로 나타난다.
- 전체 191명 중 '아니오'에 대한 응답이 '예'에 대한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2) 직업



[그림 29 - 직업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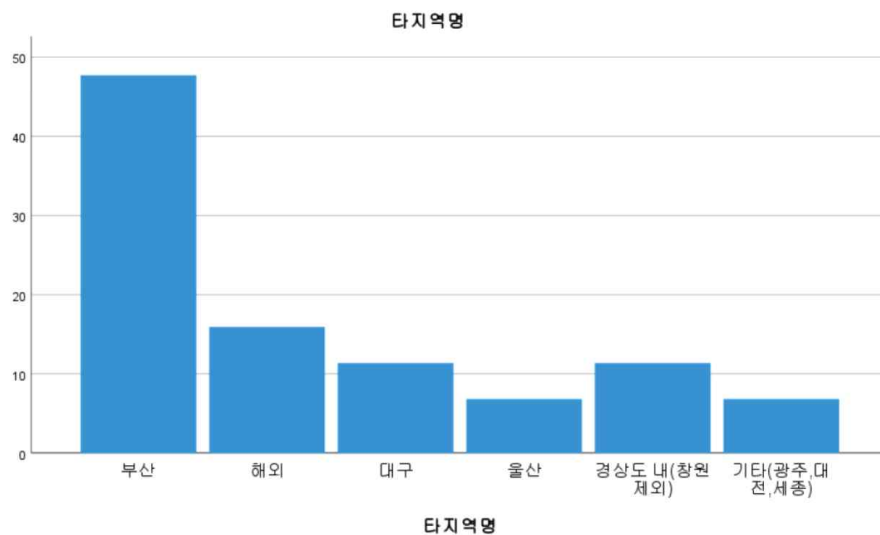
< 표 29 - 직업에 따른 타지역 이주 계획 여부 >

(단위: %, 명)

타지역 이주 계획 직업	예	아니오	응답자 수
학생	36.8	63.2	57
직장인	18.0	82.0	100
자영업자	0.0	100.0	6
졸업 후 취업준비생	53.8	46.2	13
프리랜서	37.5	62.5	8
기타	14.3	85.7	7
전체	26.2	73.8	191

- 타지역 이주 계획여부에 '예'에 응답한 비율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 53.8%(n=13)로 타 직업군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타지역 이주 지역 - Q9_1] *지역명 개방형



[그림 30 - 타지역 이주 지역]

< 표 30 - 타지역 이주 지역 >

(단위: %, 명)

지역	부산	해외	대구	울산	경상도 내 (창원 제외)	기타(광주, 대전, 세종)	응답자 수
빈도	21	7	5	3	5	3	44
비율	47.7	15.9	11.4	6.8	11.4	6.8	100.0

-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지역으로 '부산'이 47.7%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 타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 50명 중 6명이 결측 응답이다.

[타지역 이동 이유- Q9_2] *개방형

< 표 31 - 타지역 이동 이유 >

(단위: %, 명)

지역 \ 타지역 이주 이유	학업	취업 및 이직	본가	인프라	기타	응답자 수
부산	4.2	20.8	6.3	12.5	6.3	20
울산	0.0	4.2	4.2	0.0	0.0	3
창원 제외 경상도 내	0.0	4.2	2.1	0.0	4.2	4
대구	2.1	4.2	4.2	0.0	0.0	5
해외	2.1	6.3	0.0	0.0	10.4	7
기타	0.0	10.4	0.0	2.1	6.3	9
전체	8.3	50.0	16.7	14.6	27.1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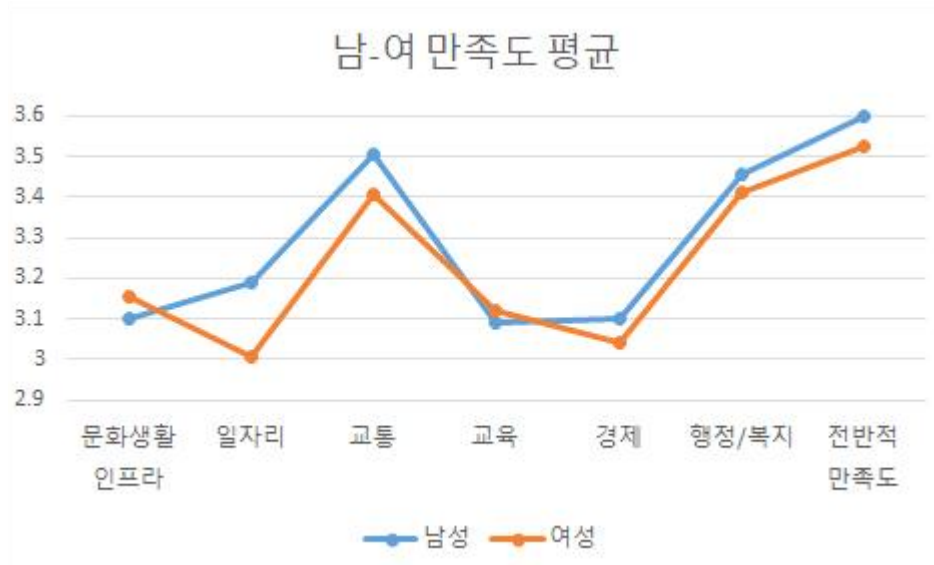
*타지역 이동 이유를 다중분석 후 지역별로 교차분석

-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 중 '취업 및 이직'의 응답 비율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취업 및 이직'으로 인한 타지역 이동은 '부산'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해외'가 6.3%(n=7) 순으로 나타난다.
-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지역 중 '부산'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 결측 응답자 수는 1명이다.

4. 개선 방안 사항

[창원시 거주 만족도 - Q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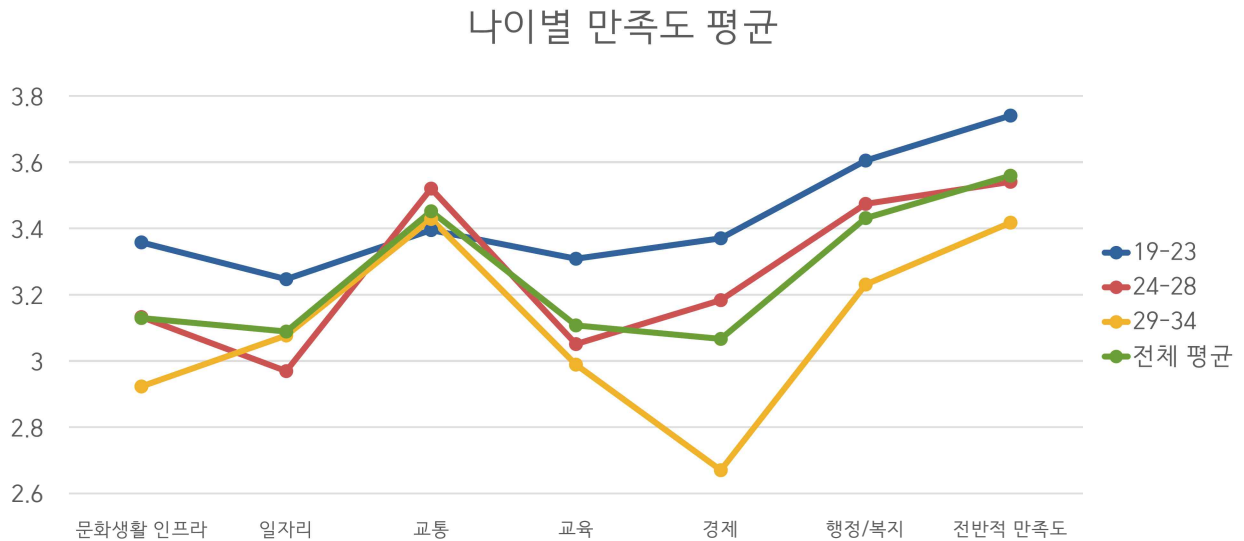
(1) 성별



[그림 31 - 성별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 남자, 여자는 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이 각각 3.60,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남자는 '교육 만족도'가 평균 3.09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 여자는 '일자리 만족도'가 평균 3.0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 전체적으로 남녀에 따른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온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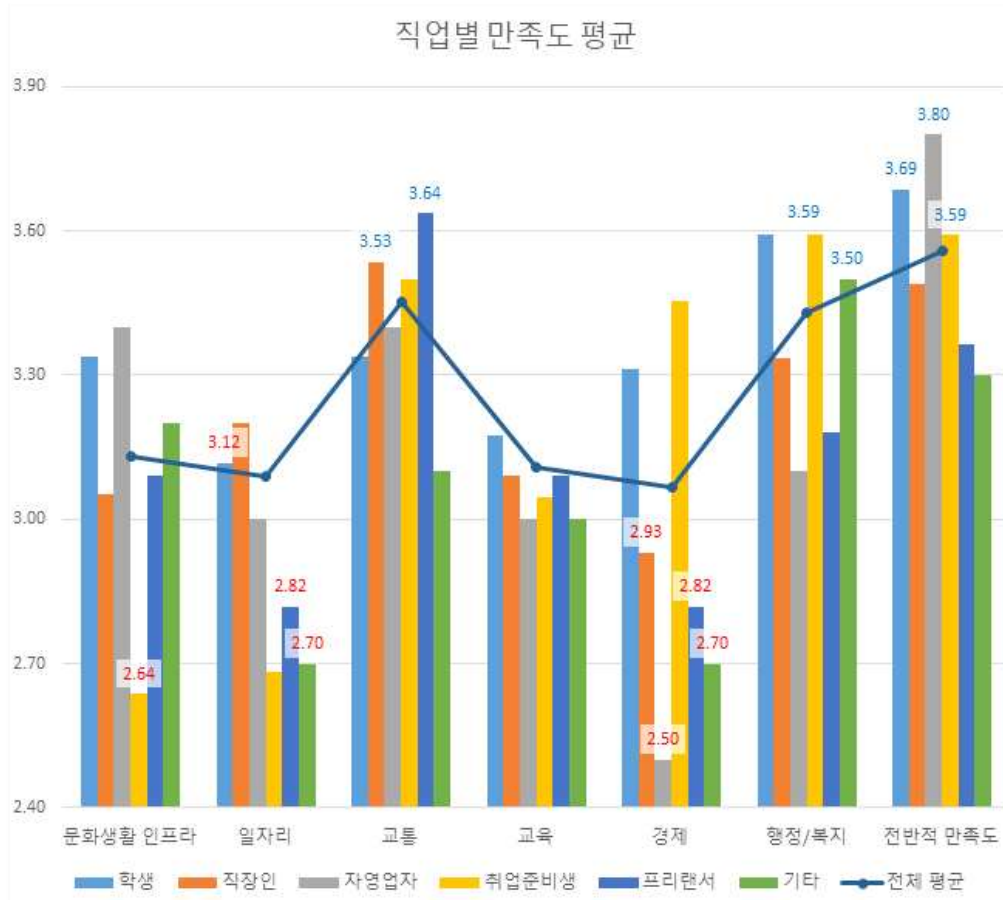
(2) 나이



[그림 3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 만 19~23세, 만 24~28세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각각 평균 3.74, 3.54로 가장 높고, 만 29~34세의 만족도는 '교통 만족도'의 평균이 3.43으로 가장 높다.
- 만 19~23세, 만 24~28세의 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의 평균이 각각 3.25, 2.97로 가장 낮고, 만 29~34세의 만족도는 '경제 만족도'가 평균 2.67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3)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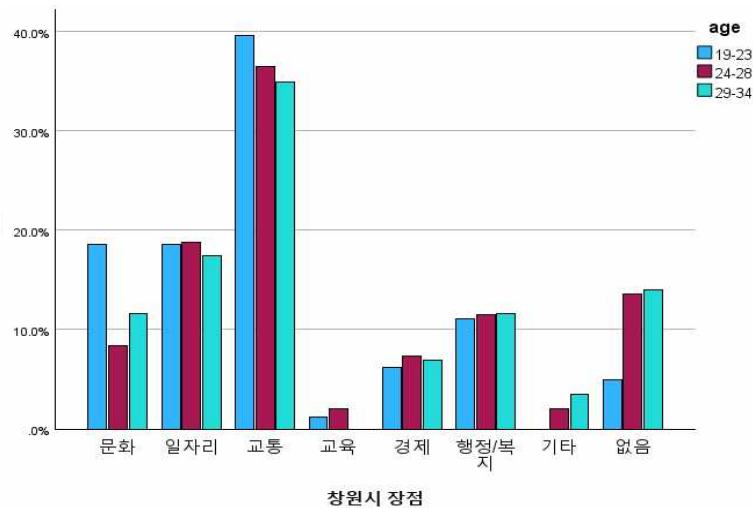


[그림 3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거주 만족도]

- 학생에서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은 만족도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은 만족도로 나타난다.
- 직장인은 '교통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경제 만족도'가 가장 낮다.
- 자영업자는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는데 이는 전체 수치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이며, '경제 만족도'가 가장 낮는데 이는 전체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이다.
- 취업준비생은 '행정/복지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문화생활 인프라 만족도'가 가장 낮다.
- 프리랜서는 '교통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다.
- 기타 직업군은 '행정/복지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일자리 만족도'와 '경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창원시 장점-Q11_1]

(1) 나이



[그림 34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장점]

< 표 3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장점 >

(단위: %, 명)

나이 \ 창원시 장점	문화	일자리	교통	교육	경제	행정/복지	기타	없음	응답자 수
19~23세	18.5	18.5	39.5	1.2	6.2	11.1	0.0	4.9	81
24~28세	8.3	18.8	36.5	2.1	7.3	11.5	2.1	13.5	96
29~34세	11.6	17.4	34.9	0.0	7.0	11.6	3.5	14.0	86
전체	12.5	18.3	36.9	1.1	6.8	11.4	1.9	11.0	263

- 만 19~23세는 '교통' 39.5%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문화', '일자리'가 18.5%로 응답 비율이 동일하다.
- 만 24~28세는 '교통' 36.5%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일자리'가 18.8%로 응답 비율이 나타난다.
- 만 29~34세는 '교통' 34.9%로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는 '일자리'가 17.4%로 응답 비율이 나타난다.
- 기타 응답은 전체 5명이 나왔고, 크게 의미 있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2) 직업

< 표 3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장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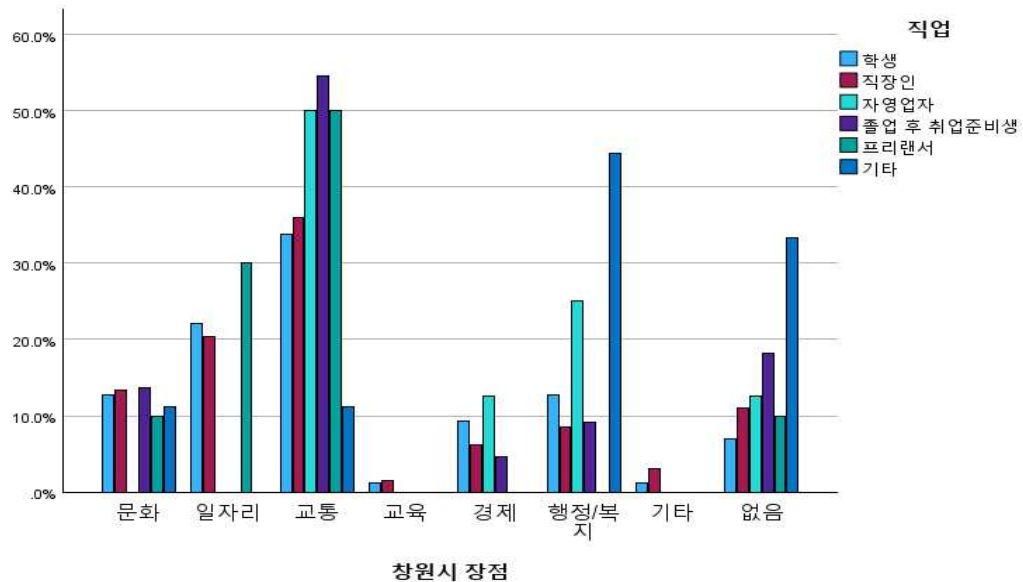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창원시 장점	문화	일자리	교통	교육	경제	행정/ 복지	기타	없음	응답자 수
학생	12.8	22.1	33.7	1.2	9.3	12.8	1.2	7.0	86
직장인	13.3	20.3	35.9	1.6	6.3	8.6	3.1	10.9	128
자영업자	0.0	0.0	50.0	0.0	12.5	25.0	0.0	12.5	8
졸업 후 취업준비생	13.6	0.0	54.5	0.0	4.5	9.1	0.0	18.2	22
프리랜서	10.0	30.0	50.0	0.0	0.0	0.0	0.0	10.0	10
기타	11.1	0.0	11.1	0.0	0.0	44.4	0.0	33.3	9
전체	12.5	18.3	36.9	1.1	6.8	11.4	1.9	11.0	263

- 전반적으로 창원시 장점으로 '교통'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학생 33.7%, 직장인 35.9%, 자영업자 50%(n=8), 졸업 후 취업준비생 54.5%, 프리랜서 50%(n=10), 기타 직업군 11.1%(n=9)를 차지하고 있다.
- 기타 직업군은 '행정/복지'가 44.4%(n=9)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7명이다.

[창원시 단점-Q11_2]

(1) 나이



[그림 35 - 나이에 따른 창원시 단점]

< 표 34 - 나이에 따른 창원시 단점 >

(단위: %, 명)

창원시 단점 나이	문화	일자리	교통	교육	경제	행정/ 복지	기타	없음	응답자 수
19~23세	29.6	19.8	17.3	6.2	7.4	8.6	1.2	9.9	81
24~28세	31.3	34.4	9.4	4.2	5.2	2.1	2.1	11.5	96
29~34세	37.2	18.6	17.4	10.5	7.0	2.3	1.2	5.8	86
전체	32.7	24.7	14.4	6.8	6.5	4.2	1.5	9.1	263

- 창원시 단점에서 '문화'는 만 19~23세 29.6%, 만 29~34세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만 24~28세는 '일자리'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문화'가 31.3%로 응답 비율이 나타난다.
- 기타 응답은 4명이 나왔고, '의료' 외에 의미 있는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2) 직업

< 표 35 - 직업에 따른 창원시 단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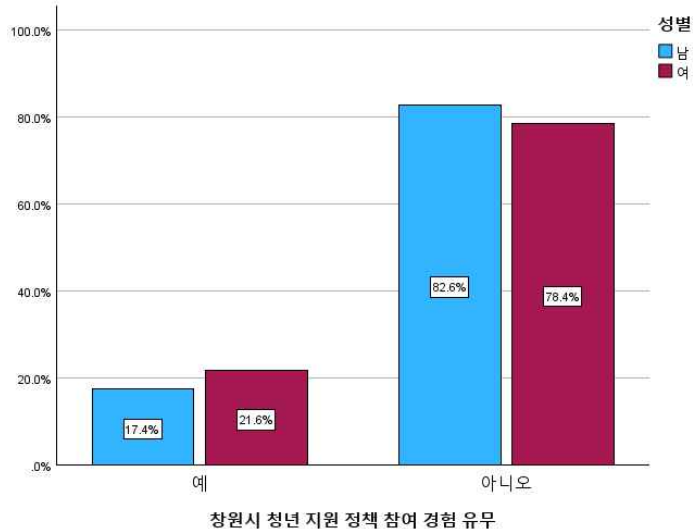
(단위: %, 명)

<div>창원시 단점</div> <div>직업</div>	문화	일자리	교통	교육	경제	행정/ 복지	기타	없음	응답자 수
학생	31.4	20.9	19.8	5.8	8.1	4.7	1.2	8.1	86
직장인	34.1	26.4	11.6	7.8	6.2	3.9	2.3	7.8	129
자영업자	37.5	12.5	37.5	0.0	12.5	0.0	0.0	0.0	8
졸업 후 취업준비생	42.9	28.6	4.8	0.0	0.0	4.8	0.0	19.0	21
프리랜서	10.0	40.0	0.0	20.0	0.0	10.0	0.0	20.0	10
기타	22.2	22.2	22.2	11.1	11.1	0.0	0.0	11.1	9
전체	32.7	24.7	14.4	6.8	6.5	4.2	1.5	9.1	263

- 전반적으로 창원시 단점으로 '문화'에 응답 비율이 학생 31.4%, 직장인 34.1%, 졸업 후 취업준비생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자영업자는 '문화'와 '교통'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둘 다 37.5%(n=8)로 동일하다.
- 결측 응답자 수는 7명이다.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 Q12]

(1) 성별



[그림 36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 '예'에 대한 응답에서 남자는 17.4%, 여자는 21.6% 응답 비율이 나온다.
- '아니오'에 대한 응답에서 남자는 82.6%, 여자는 78.4% 응답 비율이 나온다.
- '예'에 대한 응답에 비해 '아니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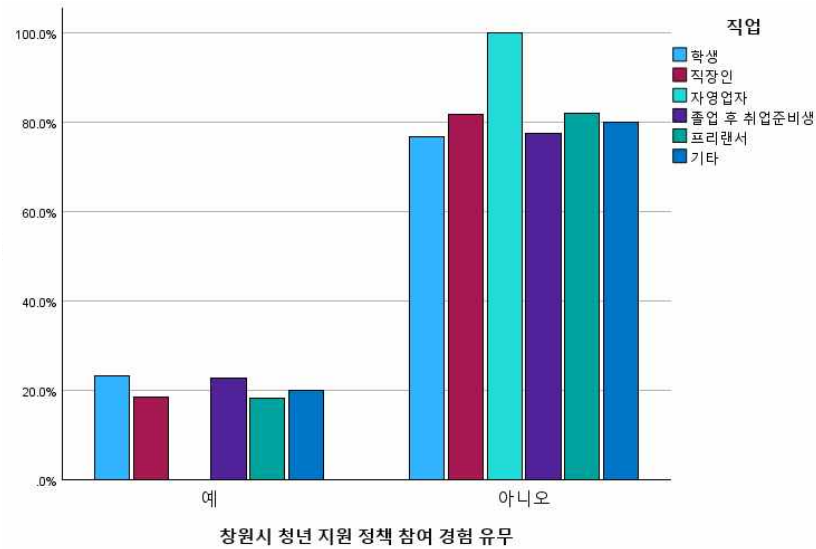
(2) 나이



[그림 37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 창원시 정책 참여 경험 유무에 '아니오'에 대한 응답이 '예'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높다.
- 만 29~34세는 다른 나이대에 비해 '아니오'에 대한 응답이 90%로 높게 나타난다.

(3) 직업



[그림 38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경험 유무]

< 표 36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유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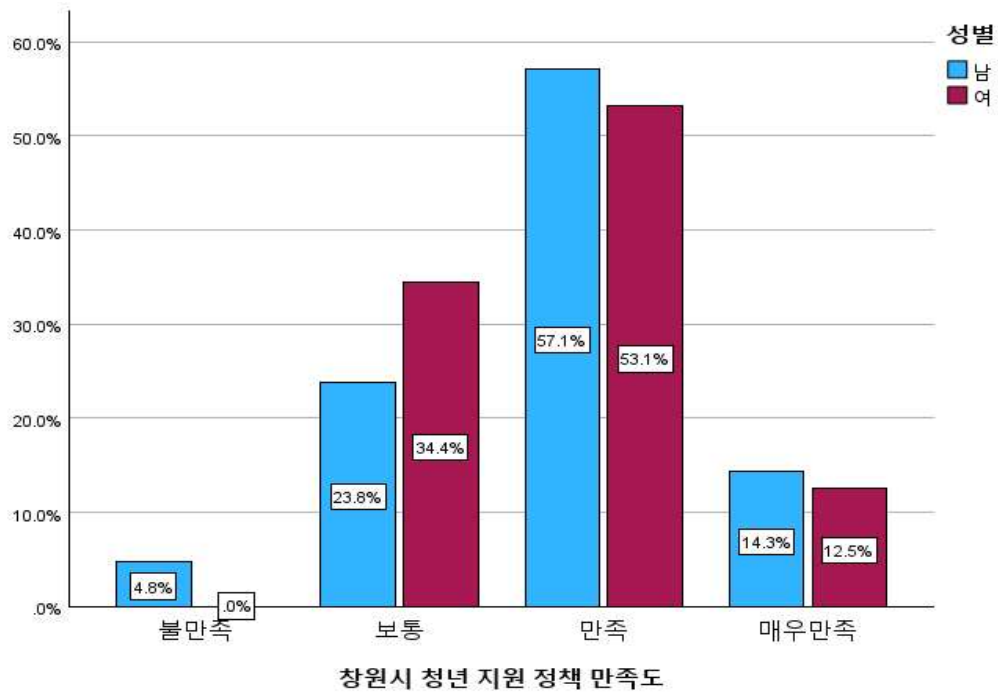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참여 유무	예	아니오	응답자 수
학생	23.3	76.7	86
직장인	18.3	81.7	131
자영업자	0.0	100.0	9
졸업 후 취업준비생	22.7	77.3	22
프리랜서	18.2	81.8	11
기타	20.0	80.0	10
전체	19.7	80.3	269

- 창원시 정책 참여 경험 유무에 '아니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으며, 학생 76.7%, 직장인 81.7%,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77.3%, 프리랜서 81.8% (n=11), 기타 직업군 80%(n=10)가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을 수 있다.
- 결측 응답자는 1명이다.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Q12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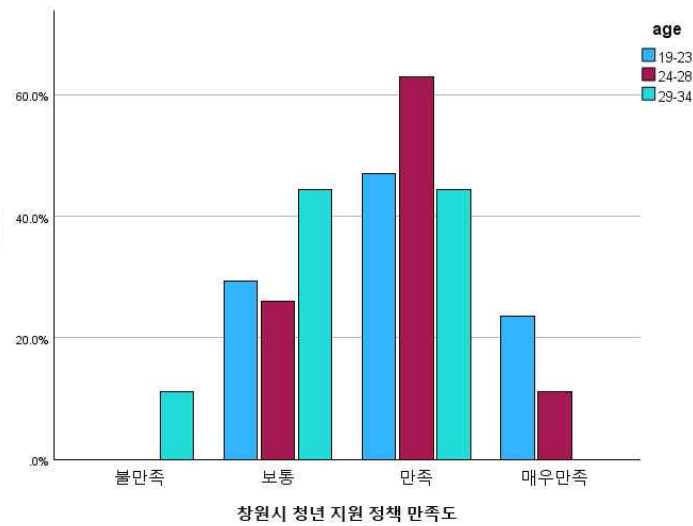
(1) 성별



[그림 39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만족'에 응답이 제일 높게 나왔으며 남자 57.1%, 여성 53.1%로 나타난다.
- 그다음으로는 '보통'에 대한 응답이 남자 23.8%, 여성 34.4%로 나타난다.

(2) 나이



[그림 40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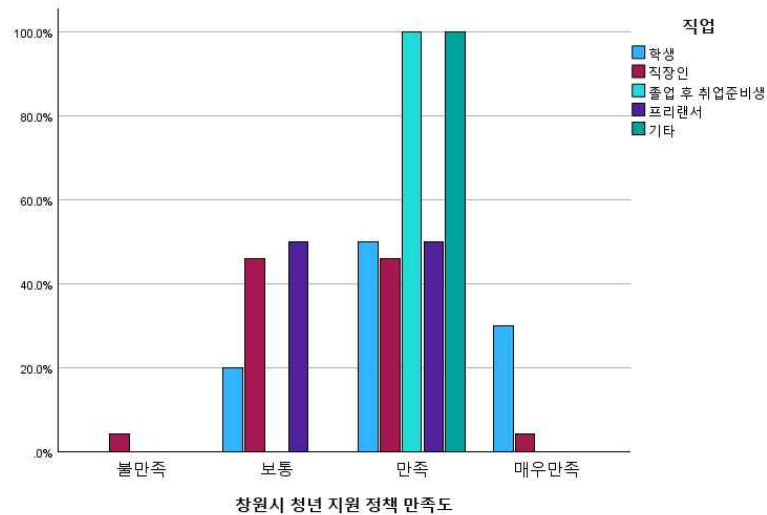
< 표 37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단위: %, 명)

나이 \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응답자 수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9~23세	0.0	29.4	47.1	23.5	17
24~28세	0.0	25.9	63.0	11.1	27
29~34세	11.1	44.4	44.4	0.0	9
전체	1.9	30.2	54.7	13.2	53

- 창원시 정책 만족도의 '만족'에 대한 응답은 만 19~23세 47.1%, 만 24~28세의 63%, 만 29~34세는 44.4%(n=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창원시 정책 만족도의 '보통', '만족'에 대한 응답은 만 29~34세의 비율이 각각 44.4%(n=9)로 동일하다.

(3) 직업



[그림 41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표 38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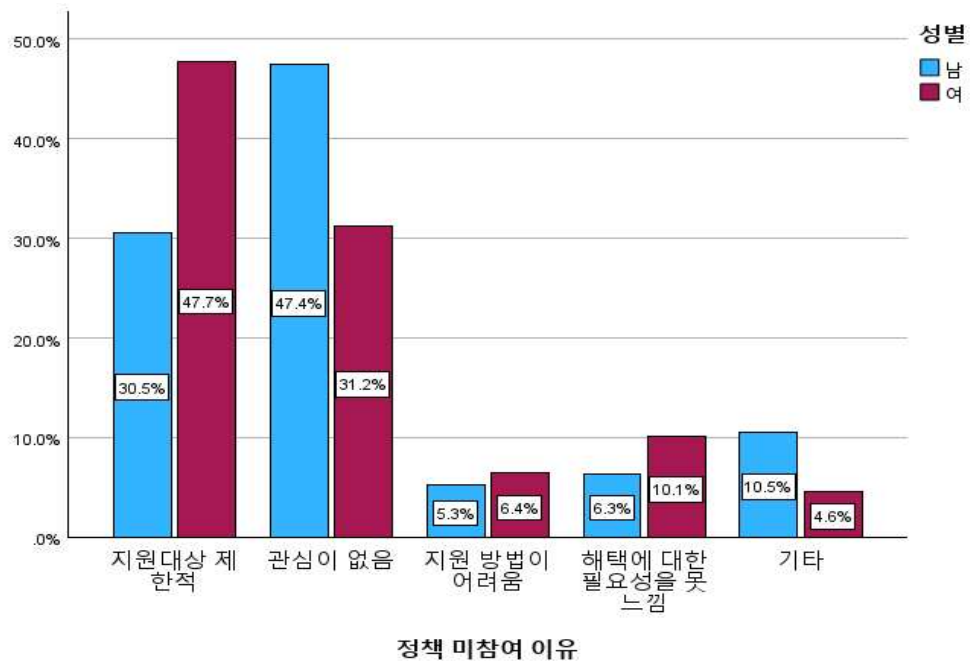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 직업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 수
학생	0.0	20.0	50.0	30.0	20
직장인	4.2	45.8	45.8	4.2	24
자영업자	0.0	0.0	0.0	0.0	0
졸업 후 취업준비생	0.0	0.0	100.0	0.0	5
프리랜서	0.0	50.0	50.0	0.0	2
기타	0.0	0.0	100.0	0.0	2
전체	1.9	30.2	54.7	13.2	53

- 창원시 정책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에 직장인만 응답하며, 응답률은 4.2%로 나타난다.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학생은 50%, 직장인은 45.8%이다.
- '매우 만족'에 대한 응답은 다른 직업에 비해 학생이 30%로 높게 나타난다.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_Q12_2]

* 기타 응답자 중 제약이 많음으로 응답하신 분을 1번 응답으로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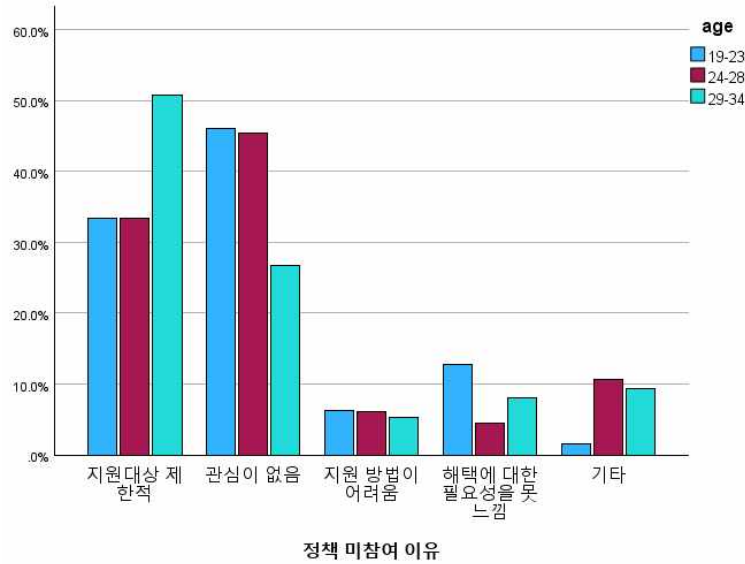
(1) 성별



[그림 42 - 성별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남자는 '관심이 없음'이 47.4%로 높게 나타나며, 그다음으로는 '지원대상 제한적'이 30.5%의 비율로 나타난다.
- 여자는 '지원대상 제한적'이 47.7%로 높게 나타나며, 그다음으로는 '관심이 없음'이 31.2%의 비율로 나타난다.
- 기타 응답은 정보 부족(7), 최근 전입(5) 외 3개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2) 나이



[그림 43 - 나이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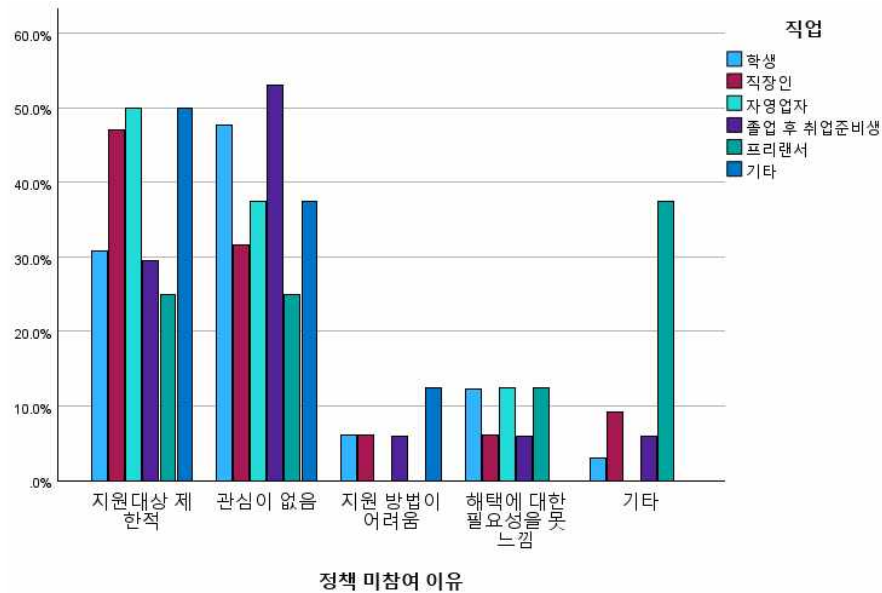
< 표 39 - 나이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단위: %, 명)

정책 미참여 이유 나이	지원대상 제한적	관심이 없음	지원방법이 어려움	혜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33.3	46.0	6.3	12.3	1.6	63
24~28세	33.3	45.5	6.1	4.5	10.6	66
29~34세	50.7	26.7	5.3	8.0	9.3	75
전체	39.7	38.7	5.9	8.3	7.4	204

- 지원 정책 미참여 이유에서 '지원대상 제한적' 응답이 만 19~23세, 만 24~28세 33.3%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만 29~34세 50.7%로 다른 나이대에 비해 높은 비율이 나온다.
- 지원 정책 미참여 이유에서 '관심이 없음' 이 만 19~23세 46%, 만 24~28세 45.5%로 '지원대상 제한적'보다 높게 나타나며, 만 29~34세는 26.7%로 나타난다.

(3) 직업



[그림 44 - 직업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표 40 - 직업에 따른 정책 미참여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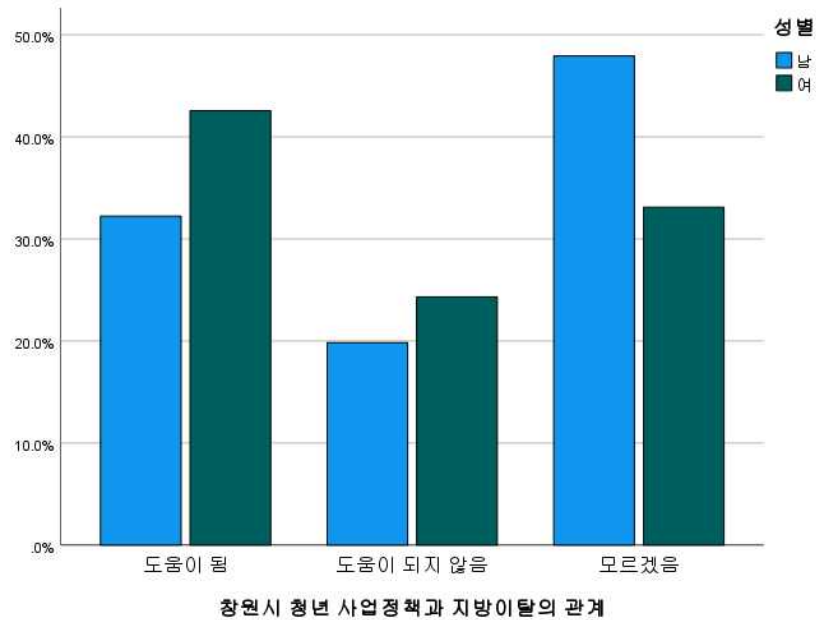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정책 미참여 이유	지원대상 제한적	관심이 없음	지원방법이 어려움	혜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기타	응답자 수
학생	30.8	47.7	6.2	2.3	3.1	65
직장인	46.9	31.6	6.1	6.1	9.2	98
자영업자	50.0	37.5	0.0	12.5	0.0	8
졸업 후 취업준비생	29.4	52.9	5.9	5.9	5.9	17
프리랜서	25.0	25.0	0.0	12.5	37.5	8
기타	50.0	37.5	12.5	0.0	0.0	8
전체	39.7	38.7	5.9	8.3	7.4	204

- 지원 정책 미참여 이유에 '지원대상 제한적'은 직장인 46.9%, 자영업자 50%(n=8), 기타 직업군 50%(n=8)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 지원 정책 미참여 이유에 '관심이 없음'은 학생 47.7%, 졸업 후 취업준비생 52.9%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다.
- 결측 응답자 수는 12명이다.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_Q13]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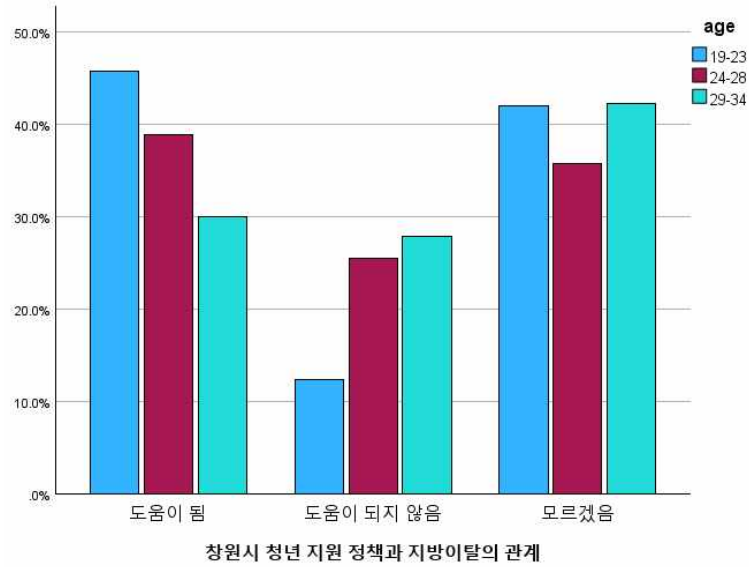
[그림 45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표 41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성별	창원시 정책과 지방이탈 간의 관계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모르겠음	응답자 수
남		32.2	19.8	47.9	121
여		42.6	24.3	33.1	148
전체		37.9	22.3	39.8	269

- 남자는 '모르겠음'이 47.9%로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도움이 됨'이 32.2%의 비율로 나타난다.
- 여자는 '도움이 됨'이 42.6%로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는 '모르겠음'이 33.1%의 비율로 나타난다.

(2) 나이



[그림 46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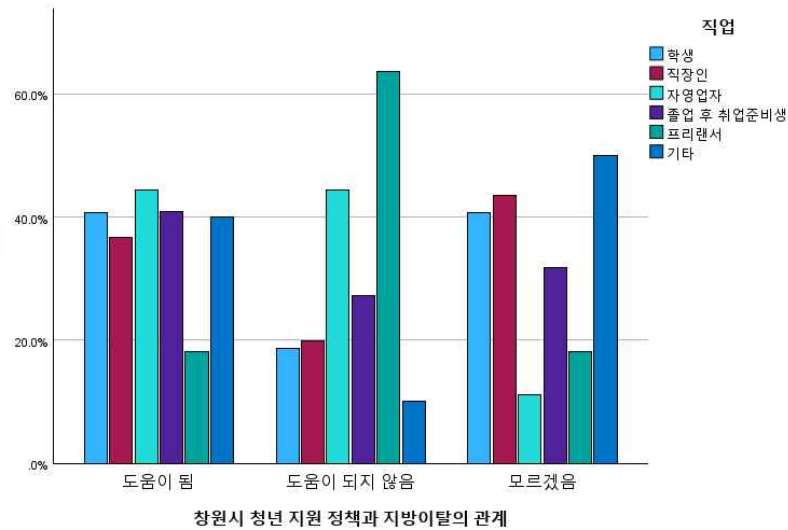
< 표 42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단위: %, 명)

창원시 정책과 지방이탈 간의 관계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모르겠음	응답자 수
나이				
19~23세	45.7	12.3	42.0	81
24~28세	38.8	25.5	35.7	98
29~34세	30.0	27.8	42.2	90
전체	37.9	22.3	39.8	269

- 만 19~23세의 45.7%, 만 24~28세의 38.8%, 만 29~34세의 30%가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 지방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보인다.
- 만 19~23세의 12.3%, 만 24~28세의 25.5%, 만 29~34세의 27.8%가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이 '청년 지방이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을 보인다.

(3) 직업



[그림 47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표 43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청년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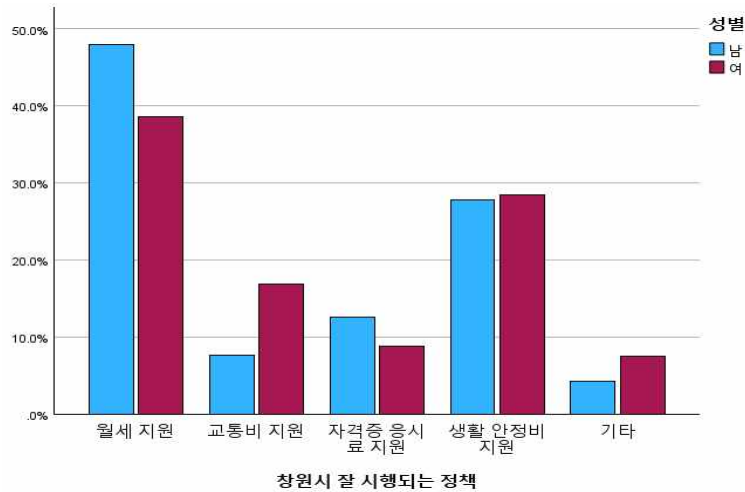
(단위: %, 명)

창원시 정책과 지방이탈 간의 관계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모르겠음	응답자 수
직업				
학생	40.7	18.6	40.7	86
직장인	36.6	19.8	43.5	131
자영업자	44.4	44.4	11.1	9
졸업 후 취업준비생	40.9	27.3	31.8	22
프리랜서	18.2	63.6	18.2	11
기타	40.0	10.0	50.0	10
전체	37.9	22.3	39.8	269

- 학생은 '도움이 됨'과 '도움이 되지 않음' 비율이 40.7%, 직장인은 '모르겠음' 43.5%, 자영업자는 '도움이 됨'과 '도움이 되지 않음'이 44.4%(n=9),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도움이 됨' 40.9%, 프리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음' 63.6%(n=11), 기타 직업군은 '모르겠음' 50%(n=10)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다.
- 결측 응답자 수는 1명이다.

[창원시 정책 중 잘 시행되는 정책 - Q14] * 14_5(기타응답) 개방형

(1) 성별



[그림 48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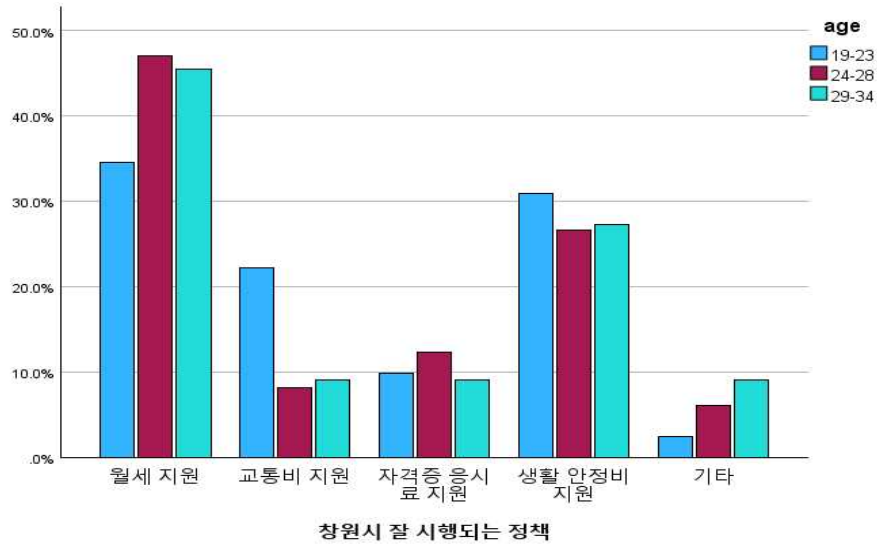
< 표 44 - 성별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단위: %, 명)

성별 \ 잘 시행되는 정책	월세 지원	교통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생활 안정비 지원	기타	응답자 수
남	47.9	7.6	12.6	27.7	4.2	119
여	38.5	16.9	8.8	28.4	7.4	148
전체	42.7	12.7	10.5	28.1	6.0	267

- '월세 지원'에 남자가 47.9%, 여자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생활 안정비 지원'에 남자가 27.7%, 여자가 28.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나이



[그림 49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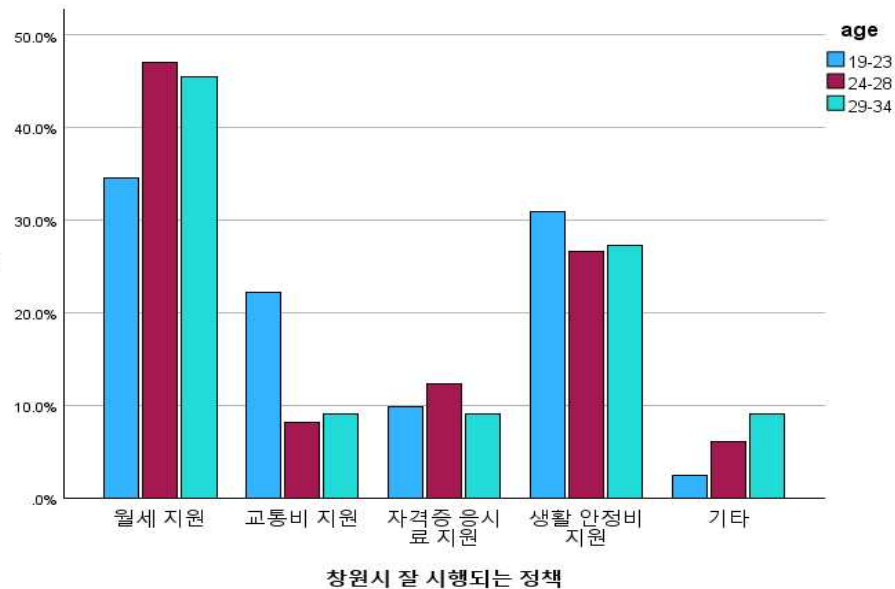
< 표 45 - 나이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단위: %, 명)

나이 \ 잘 시행되는 정책						응답자 수
	월세 지원	교통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생활 안정비 지원	기타	
19~23세	34.6	22.2	9.9	30.9	2.5	81
24~28세	46.9	8.2	12.2	26.5	6.1	98
29~34세	45.5	9.1	9.1	27.3	9.1	88
전체	42.7	12.7	10.5	28.1	6.0	267

- '월세 지원'에 만 19~23세가 34.6%, 만 24~28세가 46.9%, 만 29~34세가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생활 안정비 지원'에 만 19~23세가 30.9%, 만 24~28세가 26.5%, 만 29~34세가 27.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3) 직업



[그림 50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표 46 - 직업에 따른 창원시 잘 시행되는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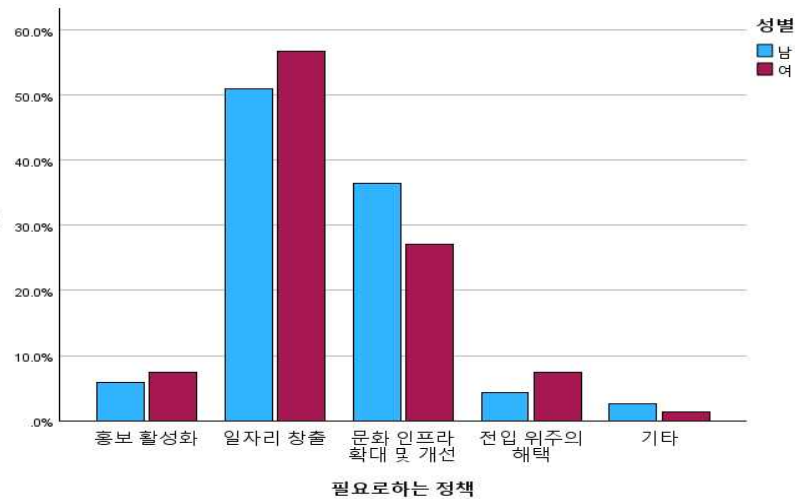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 \ 잘 시행되는 정책	월세 지원	교통비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생활 안정비 지원	기타	응답자 수
학생	40.7	14.0	9.3	31.4	4.7	86
직장인	45.0	11.6	7.8	28.7	7.0	129
자영업자	55.6	0.0	0.0	33.3	11.1	9
졸업 후 취업준비생	31.8	27.3	27.3	13.6	0.0	22
프리랜서	36.4	0.0	18.2	36.4	9.1	11
기타	50.0	10.0	20.0	10.0	10.0	10
전체	42.7	12.7	10.5	28.1	6.0	267

- '월세 지원'에 학생이 40.7%, 직장인이 45%, 자영업자가 55.6%(n=9), 졸업 후 취업준비생이 31.8%, 프리랜서가 36.4%(n=11), 기타 직업군이 50%(n=10)로 모든 직업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졸업 후 취업준비생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생활 안정비 지원'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교통비 지원'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27.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3명이다.

[필요로 하는 정책-Q15] *15-5(기타 응답) 개방형

(1) 성별



[그림 51 - 성별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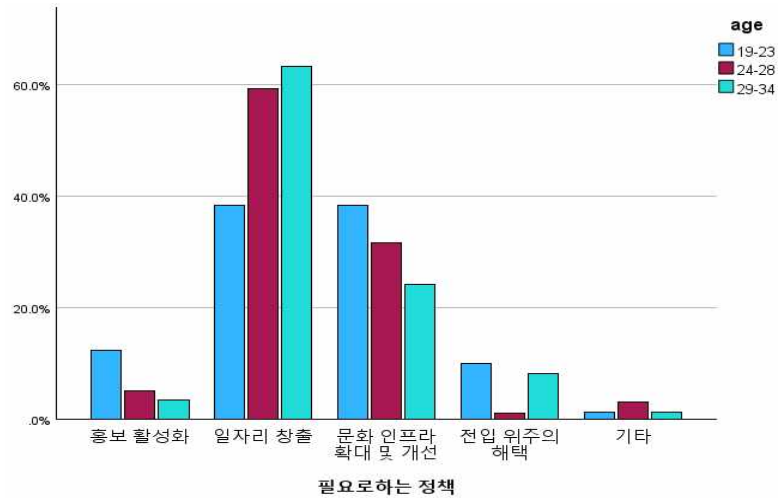
< 표 47 - 성별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단위: %, 명)

필요로 하는 정책 성별	홍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	전입 위주의 혜택	기타	응답자 수
남	5.9	50.8	36.4	4.2	2.5	118
여	7.4	56.8	27.0	7.4	1.4	148
전체	6.8	54.1	31.2	6.0	1.9	266

- '일자리 창출'에 남자가 50.8%, 여자가 5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에 남자가 36.4%, 여자가 2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기타 응답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듯하다', '문화 인프라 확대로 일자리 창출', '지방 기업 워라벨 개선', '청년 주택 보장' 등이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4명이다.

(2) 나이



[그림 52 - 나이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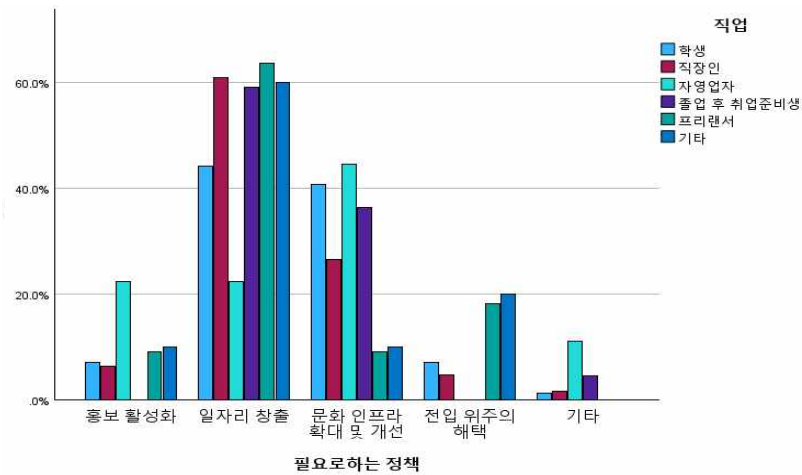
< 표 48 - 나이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단위: %, 명)

나이 \ 필요로 하는 정책	홍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	전입 위주의 혜택	기타	응답자 수
19~23세	12.3	38.3	38.3	9.9	1.2	81
24~28세	5.1	59.2	31.6	1.0	3.1	98
29~34세	3.4	63.2	24.1	8.0	1.1	87
전체	6.8	54.1	31.2	6.0	1.9	266

- '일자리 창출'에 만 24~28세가 59.2%, 만 29~34세가 6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만 19~23세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에 둘 다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4명이다.

(3) 직업



[그림 53 - 직업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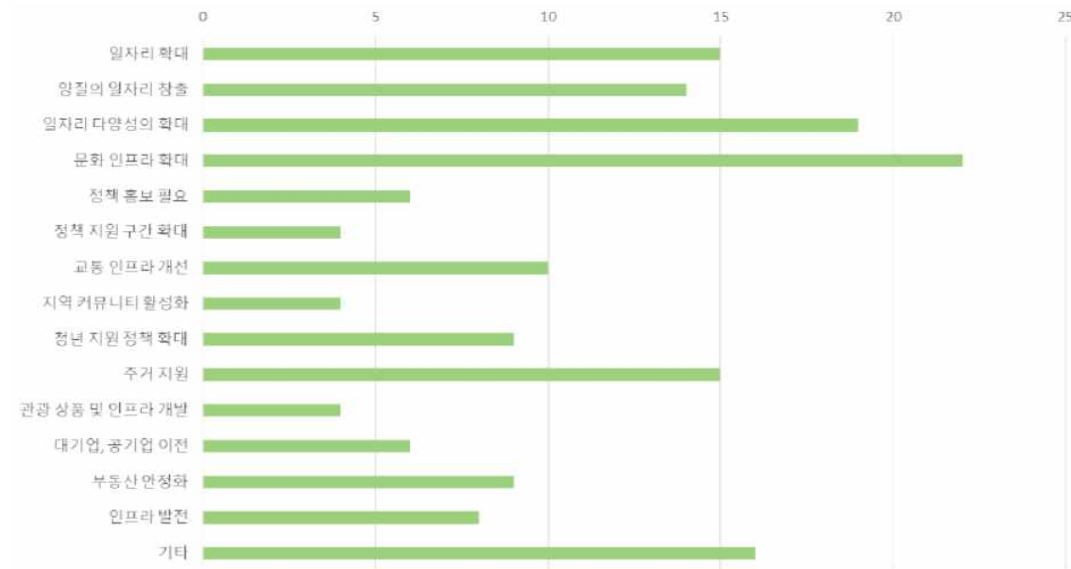
< 표 49 - 직업에 따른 필요로 하는 정책 >

(단위: %, 명)

직업 \ 필요로 하는 정책	홍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	전입 위주의 혜택	기타	응답자 수
학생	7.0	44.2	40.7	7.0	1.2	86
직장인	6.3	60.9	26.6	4.7	1.6	128
자영업자	22.2	22.2	44.4	0.0	11.1	9
졸업 후 취업준비생	0.0	59.1	36.4	0.0	4.5	22
프리랜서	9.1	63.6	9.1	18.2	0.0	11
기타	10.0	60.0	10.0	20.0	0.0	10
전체	6.8	54.1	31.2	6.0	1.9	266

-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직장인 60.9%, 졸업 후 취업준비생 59.1%, 프리랜서 63.6%(n=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학생 역시 44.2%로 '일자리 창출'에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에 40.7%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 자영업자는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에 44.4%(n=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결측 응답자 수는 4명이다.

[개선 사항 - Q16] * 개방형



[그림 54 - 개선사항 자유 의견]

< 표 50 - 개선사항 자유 의견 >

창원시 개선사항 의견 다중분석

	반응		케이스 중 %
	N	퍼센트	
일자리 확대	15	9.7%	15.8%
양질의 일자리 창출	14	9.0%	14.7%
일자리 다양성의 확대	19	12.3%	20.0%
문화 인프라 확대	22	14.2%	23.2%
정책 홍보 필요	6	3.9%	6.3%
정책 지원 구간 확대	4	2.6%	4.2%
교통 인프라 개선	10	6.5%	10.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4	2.6%	4.2%
청년 지원 정책 확대	9	5.8%	9.5%
주거 지원	9	5.8%	9.5%
관광상품 및 인프라 개발	4	2.6%	4.2%
대기업, 공기업 유치	6	3.9%	6.3%
부동산 안정화	9	5.8%	9.5%
인프라 개발	8	5.2%	8.4%
기타	16	10.3%	16.8%
전체	155	100.0%	163.2%

a. 값 1을(를) 가지는 이분형 변수 집단입니다.

*창원시 개선사항 자유 의견을 다중분석하였음.

기타 응답 및 주요 응답)

- 지방 일자리 다양성의 확대, 문화 인프라 확대 필요.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하여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음.
- 반도체 산업 육성,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정책 활성화.
- 외부에서 유입된 전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만, 기존 창원 시민에 대한 혜택은 부족함.
- IT, 인공지능, 친환경 등 창원시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 형성, 창원시 주거비용 혜택 지원.
- 수도권과 비교해서 창원시에 정착해서 살만한 이점이 없고, 혜택도 적음, 교통도 불편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크게 편한 것도 아님, 일자리가 한정적.
- 청년들을 위한 세금사용.
- 큰 규모의 백화점 필요(다양한 브랜드가 입점 되어있는 백화점 필요)
- 수도권과의 연결성 강화. 경제활동 및 거주는 창원에서 하되, 언제든 수도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지원금 폭을 늘리기, 일자리 질을 향상(그냥 숫자X),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편리, 교통비 부담완화(버스 요금).
- 다양한 일자리 (제조업으로 일자리가 치우침).
- 단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유치.
- 홍보 활성화 필요. 시청 홈페이지 외에도 SNS 활용하여 정책 홍보 및 청년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

5. 분석결과 요약

먼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방이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41.8%)을 꼽았으며, 여자는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 (37.8%)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생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36.0%), 그다음으로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31.4%)을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직장인(42.0%), 자영업자 (50.0%)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느꼈으며, 취업준비생 (36.4%)와 프리랜서 (45.5%)는 일자리 다양성 부족을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이탈 계획에 관해 분석한 결과이다. 창원시에서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에 대한 응답 비율은 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7%/40.9%). 이주 계획 지역으로는 '서울'을 선택한 비율이 남녀 모두 가장 높았으며 (82.4%/72.1%),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만 19-23세: 70% >> 만 28-34세: 91.3%). 수도권 이주에 대한 이유로는 남녀 모두 '취직/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8.6%/51.2%), '수도권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해'의 응답은 여자가 (30.2%), '학업 및 자기개발'은 남자가 (20%) 더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또한, 어릴수록 수도권 문화 인프라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 19-23세: 33.3% >> 만 28-34세: 16.7%). 이 중 흥미롭게도, 만 24-28세의 경우 '학업 및 자기개발'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0.8%), 자기개발을 수도권 이주에 대한 이유로 삼은 이들 6명 중 3명은 '대학/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이주 후 지방으로 다시 돌아올 의향에 대해 물은 결과,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돌아올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8%/16.7%) 또한, 어릴수록 지방으로 돌아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19-23세: 53.6% >> 만 28-34세: 33.3%), 특히 학생의 경우 돌아올 의향이 약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문화 인프라 및 자기개발을 개선시키는 것을 통해 청년 지방 유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반적인 나이대에서 '취직/이직'을 수도권으로의 이주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으므로 '취직/이직'과 관련된 사업을 개선시킨다면 청년 지방 이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 비율은 나이가 적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만 19~23세 : 37.3% >> 만 24~28세 : 24.7% >> 만 39~34세 : 19.4%). 타지역 이주 지역으로는 부산 (47.7%)이 가장 높았으며, 해외

(15.9%), 대구 (11.4%), 경상(창원 외) (11.4%) 순으로 뒤따랐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 및 이직'이 가장 높았으며 (50%), 특히 부산으로의 이주 이유로는 '취업 및 이직' (20.8%)과 '문화 인프라' (12.5%)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지방이탈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창원시 거주 만족도', '창원시 지역의 장단점', 및 '창원시 청년지원 정책'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원시의 거주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에 기여한 요인은 주로 '교통' (36.9%)이었으나 나이가 들수록 '교통'을 장점으로 생각한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3세: 39.5% >> 만 29~34세: 34.9%). 반면, 전체 나이에 따른 창원시의 단점으로는 '문화생활'이 대표적이었으며(32.7%), 이 중에서, 만 24~28세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단점으로 뽑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4.4%). 한편, 창원시 청년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한 참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19.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 19-23세: 33.3% >> 만 29-34세: 50.7%), 나이가 어릴수록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3세: 46.0% >> 만 29-34세: 26.7%).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년의 경우에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이가 많은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완화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낮은 참여도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1.9% 및 만족 54.7%로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어릴수록 청년 지원 정책이 지방이탈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율이 높았다 (만 19~23세: 45.7% >> 만 29~34세: 30.0%). 창원시가 시행한 청년 지원 정책 중 긍정적으로 생각한 정책으로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월세 지원'(34.6%)와 '생활 안정비 지원'(30.9%)을 뽑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월세 지원'(45.5%)을 꼽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1) 학생들에 대한 문화 인프라 및 자기개발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청년 지방이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정책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으므로 나이가 어린 청년의 경우에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나이가 많은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정책 참여율을 높이면 청년 지방이탈 예방 및 재이주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한민국 총인구 중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몰림 현상이 발생하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100만 명이 붕괴될 위험이 존재하며 청년들의 지방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원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이탈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청년들의 지방이탈 비율을 조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창원시 청년 27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설문 문항으로는 (1)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2)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3) 타지역으로의 이주 계획, (4) 창원시에서의 거주 만족도, 장단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각 설문 문항들을 성별, 나이, 직업 등 인적사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남녀 간 원인 인식에 차이가 있다. 남자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여자는 '일자리 다양성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고, 현재 거주 중인 창원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주 계획 역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았다. 이주 지역으로는 남녀 모두 '서울'을 고려하는 비중이 높았다. 남녀 모두 '취직/이직'을 이유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남자는 '학업 및 자기개발'과 '문화 인프라'를, 여자는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해 수도권 이주를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에게서는 '부산'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때 '취업 및 이직', '인프라'의 이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들의 지방이탈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창원에 대기업/공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하여 취직 및 이직을 개선,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증진시키는 것이 청년들의 지방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지방이탈률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혜택과 질이 높은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청년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높지만, 정책에 참여해 본 인원의 비율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의 경우에는 관심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청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서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만약, 정책을 적극적으로

로 홍보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이 정책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율을 높인다면 창원에 대한 더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인식으로 창원의 청년 지방이탈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조사의 한계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이탈'이라는 주제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창원시를 이미 이탈한 청년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표본추출 과정의 오류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Ⅵ.참고문헌 및 부록

1) 참고문헌

-조사 목적 관련 기사 자료

< 창원, 100만 명 붕괴 위기…비수도권 특례시 사라지나 - 경향신문(2023) >
<https://www.khan.co.kr/local/Gyeongnam/article/202310152051005>

<지방 소멸 위기, '청년층의 지방 이탈'을 막아라 - 미디어유스(2023) >
<https://www.mediayouth.kr/news/694310>

2) 부록

1) 빈도수가 적은 데이터의 교차분석

[지방으로 다시 돌아올 의향 - Q8-3]

#수도권 이주 계획 지역 * 재이주 의향 교차분석 - Q8-2

(단위: %, 명)

수도권 -> 지방 돌아올 의향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수도권 이주 지역				
서울	35.1	15.8	49.1	67
인천	50.0	16.7	33.3	6
경기도	50.0	30.0	2.0	10
전체	38.4	17.8	43.8	73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 재이주 의향 교차분석 - Q8-2

(단위: %, 명)

수도권 -> 지방 돌아올 의향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수도권 이주 계획 이유				
취직/이직	41.7	13.9	44.4	36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 즐김	36.8	36.8	26.3	19
학업, 자기개발	36.4	9.1	54.5	11
가족 일	40.0	0.0	60.0	5
기타	33.3	0.0	66.7	3
전체	38.4	17.8	43.8	74

#취직/이직의 구체적 직종 * 재이주 의향 교차분석 - Q8-2-1

(단위: %, 명)

<div>수도권 -> 지방 돌아올 의향</div> <div>취직/이직 직종</div>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금융/회계	20.0	20.0	60.0	5
기술직(반도체, it등)	50.0	12.5	37.5	8
사무직(공무원, 행정)	40.0	20.0	40.0	5
의료종사자	80.0	20.0	0.0	5
기타	0.0	50.0	50.0	2
전체	44.0	20.0	36.0	25

#문화 인프라 구체적 종류 * 재이주 의향 교차분석 - Q8-2-2

(단위: %, 명)

<div>수도권 -> 지방 돌아올 의향</div> <div>문화 인프라 종류</div>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공연	28.6	14.3	57.1	7
전시	50.0	12.5	37.5	8
복합 문화 공간	40.0	40.0	20.0	5
기타	25.0	50.0	25.0	4
전체	38.4	30.8	30.8	13

#학업, 자기개발 구체적 분야 * 재이주 의향 교차분석 - Q8-2-3

(단위: %, 명)

<div>수도권 -> 지방 돌아올 의향</div> <div>학업, 자기개발 분야</div>	있음	없음	모름	응답자 수
대학 및 대학원 진학	33.3	0.0	66.7	3
은행 본점 근무	0.0	0.0	100.0	1
요식업	100.0	0.0	0.0	1
의료	0.0	100.0	0.0	1
전체	33.3	16.7	50.0	6

2) 기타 조사결과 분석

#카이제곱 검정

성별에 따른 수도권 이주 계획 유무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근사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 유의확률 (양측검정)	정확 유의확률 (단측검정)	포인트 확률
Pearson 카이제곱	.035 ^a	1	.852	.894	.480	
연속성 수정 ^b	.003	1	.958			
우도비	.035	1	.851	.894	.480	
Fisher의 정확검정				.894	.480	
선형 대 선형결합	.035 ^c	1	.852	.894	.480	.105
유효 케이스 수	270					

a. 0 셀 (0.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35.70입니다.

b. 2x2 표에 대해서만 계산됨

c. 표준화 통계량은 -.187입니다.

귀무가설 H0: 남녀별 수도권 이주 계획 유무에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 H1: 남녀별 수도권 이주 계획 유무에 차이가 있다.

피셔의 정확검정의 정확 유의확률(양측검정)이 0.894 > 유의수준 0.05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즉, 남녀별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에는 두 모델 간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없다.

#상관분석

수도권 이주계획 여부 - 창원시 만족도 평균

방향성 측도

명목 대 구간	에타	값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 종속		.286
만족도 평균 종속		.078

이주 계획 여부 독립, 창원시 만족도 평균 종속의 에타 결정계수가 0.078로, 이는 그 제곱근 0.2793 만큼 영향을 미친다. 즉, 수도권 이주 계획 여부는 창원시 만족도의 평균과 0.2793의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만나이 - 만족도 평균 간의 상관관계

		만족도 평균	만 나이
만족도 평균	Pearson 상관	1	-.245**
	유의확률 (양측)		0.000
	N	270	270
만 나이	Pearson 상관	-.245**	1
	유의확률 (양측)	0.000	
	N	270	270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만 나이와 만족도의 평균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하면 유의확률 $0.000 < \text{유의수준 } 0.01$ 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0.245 로 이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 나이가 증가할수록 창원시 청년들의 '문화생활 인프라', '일자리', '교통'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
> summary(logistic_model)
```

Call:

```
glm(formula = Q7 ~ Q3 + Q10_1 + Q10_2 + Q10_3 + Q10_4 + Q10_5 +  
      Q10_6 + Q10_7, family = binomial, data = dataa_clean)
```

Coefficients: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z)
(Intercept)	0.88038	0.88276	0.997	0.3186
Q3	-0.02878	0.10839	-0.266	0.7906
Q10_1	-0.23323	0.17146	-1.360	0.1737
Q10_2	-0.30645	0.16886	-1.815	0.0696 .
Q10_3	-0.01812	0.15108	-0.120	0.9046
Q10_4	-0.28179	0.21839	-1.290	0.1969
Q10_5	0.02682	0.17759	0.151	0.8799
Q10_6	0.31756	0.23786	1.335	0.1819
Q10_7	-0.08678	0.27701	-0.313	0.7541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Dispersion parameter for binomial family taken to be 1)

Null deviance: 326.41 on 269 degrees of freedom
Residual deviance: 311.81 on 261 degrees of freedom
AIC: 329.81

Number of Fisher Scoring iterations: 4

종속변수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의 유무(Q7)와 독립변수 직업(Q3), 문화생활 인프라(Q10_1), 일자리(Q10_2), 교통(Q10_3), 교육 인프라(Q10_4), 경제(Q10_5), 행정/복지 서비스(Q10_6), 창원시 거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Q10_7)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 8개의 독립변수 중 일자리(Q10_2)만이 p-value가 0.06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때 회귀계수는 -0.30645이며, 이는 일자리 만족도가 1 증가할 때마다 수도권으로 이주 계획이 존재할 확률의 로그-오즈 값인 -0.30645만큼 감소한다.

3) 개방형 응답 raw data

#직업 학생 전공 - Q3-1

id	코드	응답	id	코드	응답
1	7	산업디자인	115	6	간호
2	5	영어영문	121	4	국제무역
4	2	식품영양	122	1	사회
5	3	전자공학	126	3	건축
6	1	문화테크노	135	7	시각디자인
7	2	로봇제어	141	2	생명과학
10	5	국어국문	145	6	간호
11	2	통계	146	3	기계공학
12	2	통계	148	6	간호
13	2	통계	150	3	전자공학
14	2	통계	151	3	전기공학
15	2	통계	154	4	금융보험
17	7	연극영화	155	2	통계
23	6	간호	159	4	세무
24	6	간호	166	8	행정
25	6	간호	169	4	국제무역
31	5	국어국문	180	8	국제관계
35	8	법학	184	3	전자공학
44	8	경찰행정	218	3	전자공학
45	6	간호	221	3	항공전자
49	2	통계	222	3	산업시스템공학
53	7	미용	224	4	국제무역
55	6	간호	228	2	화학
56	3	재료공학	230	4	무역
62	4	경제	235	3	전기공학
67	3	공학	236	3	전기공학
70	3	건축공학	237	3	전기공학
71	7	애니메이션	238	3	전기공학
75	6	간호	239	5	독어독문
87	2	의류	240	3	전기정보공학부
96	6	간호	247	1	사회복지학
101	4	경제	249	3	기계공학
102	2	의류	250	3	전자공학
108	5	영어영문	251	3	기계공학
112	2	식품영양	270	1	수학교육

#직업 기타 - Q3-6

id	응답
22	주부
74	무직
88	주부
94	무직
106	이직희망
128	공무원
162	무직
213	교사
219	공무원
220	교사

#지방 이탈의 원인 기타 - Q5-6

id	응답
21	20대 모임 콘텐츠 부족
78	서울 공화국
91	수도권 네임벨류
116	집값
250	돈

#지방이탈의 문제점 기타 - Q6-6

id	응답
60	지역 차별
244	인프라 부족

#수도권 이주 지역 경기도 - Q8-1-3

id	코드	응답
16	2	성남
72	1	고양
83	4	용인
114	3	수원
160	1	고양
200	3	판교

#취직/이직 구체적 직종 - Q8-2-1

id	코드	응답
31	3	공무원
38	2	전문직이 수도권에 많음
86	4	간호사(대학병원)
94	4	병원 복지사
121	3	물류 사무직
124	1	회계직종
130	2	기술직
134	5	방송
145	4	보건, 의료 관련직
149	1	금융업
162	3	사무직
166	3	행정
176	2	반도체, it 업종
181	4	언어치료
184	2	생산관리(반도체)
198	1	인터넷 은행
200	2	데이터 사이언스
212	3	공무원
215	1	금융
218	2	AI
221	2	엔지니어
226	2	바이오
227	5	스포츠, 운동
229	1	회계, 무역
241	2	반도체
243	4	병원복지사
257	5	서울 근무

#문화 인프라 종류 - Q8-2-2 (복수응답)

id	코드	응답
9	2,3	미술관, 복합 문화공간
41	3	패션
83	2,3,4	작가 행사, 전시회, 다양한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현장
111	1,2	콘서트, 전시회
114	1,2	콘서트, 전시회
154	1,2	연극, 콘서트
168	1,2,3	예술
170	1	각종 공연, 스포츠 관람
178	1	콘서트, 페스티벌
179	3	복합문화 쇼핑 센터
210	2	미술관
255	4	맛집
267	1,4	각종 공연, 놀이공원

#학업, 자기개발 분야 - Q8-2-3

id	코드	응답
50	3	요식업
102	4	의류 분야가 서울에 많음
141	1	대학원
155	1	대학원
167	2	은행 본점 근무
240	1	대학 생활 및 대학원

#수도권 이주 이유 기타

id	응답
163	자영업 매출 문제, 더 많은 수익 얻으려고
195	이직, 문화 인프라 및 의료 문제
206	결혼계획

#타지역 이주 지역 - Q9-1

id	코드	응답	id	코드	응답
1	1	부산	75	1	부산
3	2	해외	77	3	대구
8	1	부산	78	2	해외
18	3	대구	82	6	대전
19	5	경주	101	1	부산
20	1	부산	115	1	부산
22	1	부산	120	1	부산
23	1	부산	133	3	대구
25	1	부산	139	3	대구
35	4	울산	147	6	세종
46	6	광주광역시	153	3	대구
47	1	부산	161	2	해외
48	5	김해	185	1	부산
53	1	부산	186	1	부산
55	1	부산	187	1	부산
57	1	부산	194	5	경상도 내
58	4	울산, 부산	224	2	해외
62	2	해외	232	1	부산
63	2	해외	239	2	해외
64	5	진주	247	1	부산
67	1	해외	254	4	울산
70	5	진주	270	1	부산

#타지역 이주 이유 (복수응답)

id	코드	응답
1	3,4	고향이 부산, 비교적 높은 문화시설
3	5	우리나라 취업률 하락
4	2	취업
8	2	취업
18	2	일
19	2	직업 관련
20	2	직장
21	2	취업
22	3	고향
23	2,4	취업 및 문화생활 인프라
25	2	취업
30	5	한정적임
35	3	본가
43	2	일자리 찾기
46	5	부모님의 귀농
47	2	창원의 일자리 부족 및 급여 낮음
48	3	본가
53	1	학교
55	1	학교
57	2	직장이직
58	2	연고지, 직장이직
62	5	여행
63	5	다양한 체험
64	5	결혼
67	1,2	취업 및 유학
75	2	취업
77	3	본가
78	5	도전
82	2	이직
101	5	부산의 주변환경이 적합
115	3	본가
120	2,4	일자리, 문화 다양성
133	2	양질의 일자리
139	1	학업
147	4	인프라
153	3	본가
161	2	직장
185	4	창원 인프라 부족
186	2	취업 직종이 부산에 있음
187	4	문화생활 인프라
194	2,5	발령 또는 개인적 사유

224	5	경험
232	5	결혼 후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을 거 같아서
239	2,5	취직 및 과열화
247	5	창원보다 나아서
252	2	회사 내 부서이동
254	2	이직
268	5	주거지 이동
270	2	양질의 일자리

#창원시 장점 기타 - Q11-1-7

id	응답
19	고향
181	편리한 인프라들이 한 곳에 모여있음
252	적절한 일자리, 적당히 살기 좋음. 근교의 문화(부산)

#창원시 단점 기타 - Q11-2-7

id	응답
30	한정적
176	의료
222	지리적 위치

#청년 지원 정책 참여 않은 이유 기타 - Q12-2-5

id	코드	응답
2	1	지원 사업정보를 찾기 힘들었음
16	3	출산으로 인해 기회가 없었음
19	1	홍보 부족
70	2	타지역 거주
78	1	존재여부를 몰랐음
91	2	취업으로 최근에 창원으로 전입함
142	1	정보가 적음
177	3	까먹고 신청 못함
206	2	최근 전입함
231	3	처음 알았음
254	1	잘 모름
259	2	최근 창원으로 이주함
260	1	홍보 부족
267	2	창원사람이 아니었음
268	11	있는지 몰랐음

#성공적으로 시행한 정책 기타 Q14-5

id	코드	응답
16	5	잘 모르겠음
22	5	창원에 거주한지 얼마되지 않음
30	5	모르겠음
60	4	없다고 생각
121	5	잘 모르겠음
140	3	창원 아트홀 지원
163	4	없음
169	4	없음
171	6	DRT
172	1	각 기업간 취업인계, 취업자 교통비 등 비용지원
180	5	모르겠음
196	5	모르겠음
260	5	처음 들어봄
268	5	모름
270	2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

#필요로 하는 정책 기타 - Q15-5

id	응답
30	청년 집 보장
78	마땅한 해

#창원시 개선사항 자유 의견 - Q16 (복수응답)

id	코드	응답
1	4, 8	문화의 자율성
5	4	사회, 교육 문화적 인프라가 타지역에 비해 특출나지 않음
8	7	교통체증
11	5, 9	청년 지원 정책 확대 및 홍보
16	3	다양한 일자리(제조업으로 일자리가 치우침
17	1	일자리 창출
19	2	양질의 일자리 부족
20	3, 10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주거 지원
21	8	2, 30대들의 동호회 등 활성화
24	1	일자리 확대
27	1	일자리 창출

28	3, 4	다양한 일자리 및 문화생활
30	10	청년 주택
31	1	일자리 확대
42	2	양질의 일자리
43	1	일자리
46	11	창원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활동 늘리면 좋겠음
47	1	일자리 확대, 복지 개선, 급여 인상
48	2, 9	다양한 혜택 및 지원
55	2	일자리 개선(처우, 명성에 따른 지역이동이 있는 듯함)
57	2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
59	1, 4	문화, 다양한 체험 거리가 필요, 일자리 창출
65	1	직장 문화가 더 개방적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67	5	청년 일자리 사업 원활하게 홍보
70	1	일자리 창출
72	4	지방문화 인프라 개선을 통해 문화적 격차 줄이기
76	1	한국사회가 현재 양극화로 인해 일본의 경제를 닮아간다. 이미 개선점은 양극화해도 위한 지방 분권화, 검찰개혁
79	12	지방의 대기업, 공기업 수 증가
81	1	일자리 창출
86	10	집값과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9	5, 9	정책홍보 필요, 정책 개수 확장 필요
92	15	복지
94	7, 13	교통 완화, 부동산 조절
95	4, 12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대기업 일자리 창출
113	1, 4, 5	일자리 창출, 문화 및 콘텐츠 생성
116	4, 13	다양한 문화 인프라 구축, 집값 안정
120	3, 6, 13	일자리 다양하게, 창원시 원룸 월세 인하, 청년 정책 기준 완화
121	2, 7, 9	지원금 폭을 늘리기, 일자리 질을 향상(그냥 숫자X), 지하철 개통으로 교통 편리, 교통비 부담완화(버스요금)
122	3, 4, 15	지방 일자리 다양성의 확대, 문화인프라 확대 필요. 청년 지원사업에 있어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하여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기획되었으면 좋겠음
123	3, 13	부동산 가격 하락, 일자리 다양성 확보
132	13	부동산 가격 하락
135	3, 7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제공, 부산 - 창원 간 교통 발전
138	10	생활적인 면에서 지원 늘리기
143	15	지역 발전되면 좋겠다

145	14	인프라 발전
147	1	일자리 창출
150	1, 4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151	4	문화, 여가생활 관련 인프라 확대
152	1, 4	문화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
153	2	양질의 일자리
160	2, 13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집값 비쌈
161	4, 11, 15	인프라 부족(관광, 문화 등
162	7	버스 노선 개편, 운행 확대
170	13	집값 낮추기
172	15	타 지방 대비 청년 지방이탈 심각성 인지도가 낮음, 곧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정책 수립 필요
174	7	교통 인프라 개선
176	13, 14, 15	반도체 산업 육성,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부동산 정책 활성화
177	1, 10	일자리 월세 지원
181	4	문화생활 인프라 개선
191	14, 15	단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을 유치
192	2, 3	양질의 일자리 유치 및 사무직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요함
194	2,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 문화 인프라 확대 개선
195	15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역 성장 정책으로 옆 지방 도시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음
199	2, 12, 1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 기업의 지방 인재 우대, 지방 대기업의 취업 연계
200	7, 15	수도권과의 연결성 강화. 경제활동 및 거주는 창원에서 하되, 언제든 수도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연결 및 접근성 강화
202	2	양질의 일자리 필요
204	3, 4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인프라 개발(백화점), 직업의 다양성 개선
205	4	큰 규모의 백화점 필요(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있는 백화점 필요)
206	3, 7, 12	일자리 다양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본점 이전, 교통불편 개선(편성표 확대 및 공항버스의 편성표 및 정류소 확대)

207	5	홍보 활성화 필요. 시청 홈페이지 외에도 SNS활용하여 정책 홍보 및 청년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개선
212	2,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문화생활 인프라 확대
214	3	일자리 다양성 확대
219	3, 5, 9	일자리 다양성 확대, 지방 홍보 필요
220	12, 14	대기업 이전, 교육 인프라 확대 필요
224	15	이탈이 아닌 유입에 집중
225	9, 15	청년들을 위한 세금사용
226	6, 7	청년 혜택 지원 구간 확대, 대중교통 증편
230	4	지방 문화생활 인프라 확대
231	3	다양한 일자리 창출
235	9, 15	외부에서 유입된 전입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많지만, 기존 창원 시민에 대한 혜택은 부족함
237	1	일자리 창출
239	6	지원 정책의 조건 완화
243	15	청년 참여
244	4, 10	문화 인프라 확대 개선 및 거주 안정성 필요
245	4, 11	다양한 계층에 맞는 일자리는 충분함. 문화 시설과 관광 상품 확대, 발전, 확대에 더 중점화
252	3	일자리 다양성의 부족
257	13	집값 하락, 교통개선
258	4, 10	문화 인프라 확대, 월세지원정책 필요
259	15	대기업 취업시 인근 거주자 가산점 활성화
260	6	지원제약조건 완화
264	3, 14	일자리 다양성 확보 및 인프라 확대
265	4	문화 인프라 확대
268	4, 12	문화 인프라 확대, 개선, 대기업
269	2, 3, 10, 15	IT, 인공지능, 친환경 등 창원시 청년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원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기업 형성, 창원시 주거비용 혜택지원
270	3, 15	수도권과 비교해서 창원시에 정착해서 살만한 이점이 없고, 혜택도 적음, 교통도 불편하지 않지만, 수도권에 비하면 크게 편한 것도 아님, 일자리가 한정

창원시 청년들의 지방 이탈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창원대학교 통계학과 학생들입니다.

혹시 귀하께서는 최근 들어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본 조사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4세)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 및 원인을 파악하여 점차 증가하는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익명성이 엄격히 보장되며 통계적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설문 조사는 약 5분 정도 소요될 것이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의 기입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으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 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05.

조사원: 김민규, 이현주, 이혜슬, 황유정, 손인서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항목에 해당한다면 괄호 안에 그 내용을 자세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질문은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만 나이를 기입 해주십시오. 만 ()세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전공: _____) ② 직장인 ③ 자영업자
④ 졸업 후 취업준비생 ⑤ 프리랜서 ⑥ 기타()

● 다음 질문은 국내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인식조사사항입니다.

* ‘지방이탈’이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것을 기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1년 이상 수도권에서 거주한 후 지방으로
돌아온 것도 지방이탈로 간주)

4. 국내에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지방이탈에 대한 현상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느껴지십니까?

- ① 0%이상~20%미만 ② 20%이상~40%미만 ③ 40%이상~60%미만
④ 60%이상~80%미만 ⑤ 80%이상~100%이하

5. 국내에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지방이탈의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문화생활 인프라 부족 ② 양질의 일자리 부족 ③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
④ 행정/복지 서비스 ⑤ 본인의 교육 ⑥ 기타()

6. 청년들의 지방이탈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한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① 지방 고령화 심화 ② 수도권-지방 간 인구 수 불균형 심화
③ 지방 경제 성장 저하 ④ 지방 의료 격차 심화 ⑤ 일자리 불균형 심화
⑥ 기타()

- 다음 질문은 창원시 지방이탈과 관련한 조사 항목입니다.

7. 귀하는 창원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으로 이동해 약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예 (8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9번 문항으로)

8. 7번 문항에 ‘① 예’라고 응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8-1. 귀하가 계획 중인 이동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 ③ 경기도(시)

8-2. 귀하가 위 지역으로 이동하시려는 이유를 한 가지를 선택해주시고, 관련된 구체적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항목	구체적 이유
① 취직/이직 때문에	취직/이직을 원하는 직종 :
② 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를 즐기기 위해	문화 인프라 시설 종류:
③ 학업, 자기개발을 위해	학업,자기개발 분야:
④ 의료 격차	
⑤가족 일로 인한 수도권 이주	
⑥기타()	

8-3. 수도권으로 이주한 이후로 지방으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9-1. 귀하는 창원에서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동해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해외일 경우에는 지역명에 해외라고 표기해주시요.

9-2. (* 9-1번 문항에 ‘① 예’라고 응답하신분만 답해주십시오.)
귀하가 타지역으로 이동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다음 각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주세요.

- 4 -

14. 창원시 청년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선택해주시요.

- ① 월세 지원 (ex. 창원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
- ② 교통비 지원 (ex. 경상남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 ③ 자격증 응시료 지원 (ex.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 ④ 생활 안정비 지원 (ex.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⑤ 기타()

15. 창원시 청년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만 선택해주시요.

- ① 지방정책 홍보 활성화 ② 지방 일자리 창출 ③ 지방 문화 인프라 확대 및 개선
- ④ 지방 전입 위주의 혜택 ⑤ 기타()

16. 창원시에서 청년들의 지방이탈을 줄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